정책사업 2008-2

새 정부의 평생직업교육부문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

장명희 정태화
정지선 이병욱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2008년 2월 출범한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국정과제 보고를 발표하였다. 국정과제 보고에는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신 발전체제 전략과 5대 국정지표를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로 분류·제시하였다.

5대 국정지표 중 교육과 관련된 「인재 대국」 분야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 3대 전략에 18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새 정부에서 제시한 평생직업교육부문 국정 과제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및 「일과 학습이 하나 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에서 추진 근간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원에서는 평생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새 정부의 평생직업교육부문 과제에 대한 추진 전략 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 추진 과정에서 새 정부의 평생직업교육부문 과제들에 대한 배경, 이전 관련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기초로 정책 담당자와 각계 전문가 및 현장 전문가가 모여 추진 전략 안을 수립·제시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년 기본연구 2008-29번으로 진행되었으며, 장명희 박사가 책임자로서 정태화, 정지선, 이병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는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방안',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자격과의 연계 방향' 등 세 개 주제에 대한 추진 전략,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관련 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과 우리 원이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기능 모색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를 추진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의 담당관 및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단기간 동안 연구를 생성하여 기초 자료 수집, 분석 및 수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방안을 도출해 온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2008년 6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대행 김 형 만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관련 정책 자료 분석 · 2
1. 핵심과제 5-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2
2. 일반과제 7-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4

제3절 연구 내용 · 6
1.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 · 6
2.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7
3.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자격과의 연계 방향 · 7

제4절 연구의 방법 · 7
1.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 7
2. 면담 및 사례 분석 · 7
3.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협의회 · 8

제5절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 8

제2장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

제1절 추진 배경 · 11

제2절 현황 · 13

제3절 사내대학 활성화 저해요인 · 19

제4절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 · 21

제5절 기대효과 · 23

제3장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방안

제1절 추진 개요 · 25

제2절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현황과 주요 문제점 · 27
1. 환경적 요인 · 27
2.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체제 현황 · 30
3. 기업체의 평생학습 지원체제 · 34

제3절 고등교육기관 평생학습 기능정립의 효과성 및 필요성 논의 · 36

제4절 주요 추진과제 및 강화 방안 · 41
1. 지식기반사회의 산업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학습 · 41
2.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적합성 강화 · 42
3. 대학프로그램의 다양화 · 43
4. 성인학습자 접근 방안 · 46
5.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적정화 · 47
6. 대학평생교육원 운영의 체계화 · 49
7. Blended Learning 확대 · 51
8. 대학의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체제 구축 · 52
9.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분담 · 53
10. 정부부처의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 54

제4장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자격과의 연계 방향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의 추진 배경 · 57

제2절 평생학습계좌제 개념과 운영 현황 · 59
1. 평생학습계좌제의 근거와 개념 · 59
2. 학습계좌제의 운영 현황 · 66

제3절 평생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계 방향 · 82
1. 자격제도의 개선 방향 · 82
2. 평생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계 방향 · 87

참고문헌 · 92

<표목차>

<표 Ⅱ-1> 사내대학 및 기술대학 운영 개요 · 15
<표 Ⅱ-2> 유사 대학간 비교 · 16

<표 Ⅲ-1> OECD 회원국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2004년) · 29
<표 Ⅲ-2> 교육훈련 받은 기관과 향후 희망 기관 비율(2005) · 30

[그림 목차]

[그림 Ⅲ-1] 주요 국가의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예산 비중 · 29
[그림 Ⅲ-2] 평생학습에서 직무훈련학습의 비중 국제 비교 · 31
[그림 Ⅲ-3] 직업기초능력의 괴리 정도 국제비교 · 33
[그림 Ⅲ-4] 연령별 주당 학습시간과 노동시간 · 38

[그림 Ⅳ-1]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자격제도 변화 · 84
[그림 Ⅳ-2] 지식정보시대의 자격제도 목표와 전략 · 84

【요약】

1. 연구 개요

○ 새 정부의 평생직업교육 관련 과제는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발표된 국정과제 18개 중 5개 핵심과제에 포함되었음.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일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내대학 활성화' 과제는 근로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평생학습 촉진과 생애능력개발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새 정부의 평생직업교육 관련 과제의 추진 방향과 정책적인 요구 등을 파악하여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연구 내용은 다음 3가지 평생직업교육 관련 과제의 정책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두었음.

-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
-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자격과의 연계 방향

○ 이 연구 내용의 추진에는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면담 및 사례 분석, 전문가 협의회 등의 연구 방법이 활용되었음.

2.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

□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 수립에서는 정책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사내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저해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관련 법령의 정비

○ ‘고등교육법’ 55조에 따른 기술대학을 ‘평생교육법’ 32조에 따른 사내대학으로 일원화

□ 사내대학 운영 형태의 다양화

○ 사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설립 허용
○ 산업단지를 통한 설립 허용
○ 해당 사업체의 인력개발 사업 통합관리 기회 제공
○ 대학원 과정 운영 허용

□ 규제 완화 : 설립 및 학사제도 관련 조항 개정

○ 설치 기준 완화
○ 입학자격 삭제
○ 겸임교원, 전용시설 등 확보 기준 완화 검토

□ 재정지원 확대

○ 노동부 고시의 고용보험기금 지원금 확대
○ 사내대학 운영 사업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 실습실 구축 등 사내대학 시설투자비 국고 지원
○ 대학대상 정부부처 지원사업에의 참여 기회 허용

□ 마이스터 고교 졸업생에 대한 우대(장기 추진 과제)

○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마이스터 고교 졸업생에 대한 우선 입학 기회 허용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 규정에 관련 조항 추가

3.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방안

□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이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고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음.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10가지로 제시하였음.

□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

○ 지식기반사회의 산업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학습
○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적합성 강화
○ 대학 프로그램의 다양화
○ 성인학습자 접근방안
○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정화
○ 대학 평생교육원 운영의 체계화
○ Blended Learning 확대
○ 대학의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체제 구축
○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분담
○ 정부부처의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4.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자격과의 연계 방향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따른 자격과의 연계 방향 수립에서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대한 추진 배경을 파악하고, 교과부와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간에 함의를 이룬 평생학습계좌제의 개념 및 관련 정책의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음. 이 자료를 토대로 평생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평생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계를 위한 전제

- ○ 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격 관련 법상에 평생학습에 의한 교육훈련 즉 학습경험과 자격과의 연계를 위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 학습계좌제에 의한 교육훈련의 수준이 국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학력조건에 상응하도록 평가 제공되어야 함.
- ○ 학습결과를 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자격의 수준을 어느 학력 수준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판단
- ○ 학습내용에 따라 취득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결정될 수 있으나 각 자격 종목별 취득요건에서 학습경험만으로 무시험 자격 부여가 가능한지, 교육훈련과정 개정시 어떤 자격과 연계 가능한지 검토 필요
- ○ 국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응시요건에 현장 경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조건 마련을 위해 선행학습과 근로경험의 평가인정체제 및 다양한 검정 방법 도입 필요

□ 평생학습계좌제와 자격의 연계 방식

- ○ 현행 학점은행제 운영시 학습자 취득 자격의 학점 인정 방식 확대

○ 학습계좌제의 학점 이수결과를 근거로 자격으로 인정
○ 계좌에 기록된 근로경험 및 관련 선행학습 이력을 자격 취득으로 연계
○ 국가직무능력표준(KSS)개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결과를 관련 분야 자격 취득으로 연계

□ 국가자격체계와의 연계에 따른 기대 효과

○ 국가직무능력표준(KSS)에 기반을 두고 평가·인정된 과정의 학습결과에 대해 투명성과 형평성을 획득할 수 있음.
○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형식적, 비형식적 선행학습경험을 포함하여 인정시 국가자격체계에 근거한 수준을 명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경로 설정 및 학습 촉진에 의한 개방성을 추구할 수 있음.
○ 국가자격체계와 연계시 학습계좌이력은 개개인의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경로 설계 등에 직업능력 역량을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함.
○ 궁극적으로 평생학습결과의 누적관리 체계와 국가자격체계와의 연계로 교육훈련-자격-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능력사회 구현 및 학습결과의 통합적 관리에 의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음.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2월 15일에 출범한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를 발표하였음. 국정과제 보고서는 각종 공약에 대한 새 정부의 실천계획서이며, 새 정부의 할 일에 대한 대국민 보고서로서의 의미를 가짐. 국정과제 보고서에서는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신 발전체제 전략과 5대 국정지표를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로 분류 제시하였음.

○ 5대 국정지표 중 두 번째 지표가 교육분야와 관련된 「인재 대국」이며 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 3대 전략 18개 과제로 구성 제시되었음. 18개 과제 중에서 평생직업교육 관련 과제는 5개 핵심과제의 하나로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이 포함되었음.

○ 이들 평생직업교육부분 국정 과제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 및 「일과 학습이 하나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에서 추진 근간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강화’

과제는 우리 나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에의 낮은 참여율, 근로자에게 다양한 입학 전형으로의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향상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 추진, 평생학습계좌제 추진 등과 그 근간을 같이함.

○ 이와 같이 새 정부가 발표한 '인재대국'의 국정지표에 포함된 평생직업교육 관련 전략 및 과제는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의 국정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 평생직업교육 관련 과제들은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평생직업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의 주체가 결정됨에 따라 새 정부의 평생직업교육관련 과제의 추진 방향과 정책적인 요구 등을 파악하여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제2절 관련 정책 자료 분석

○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08년 2월 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중 '인재대국' 국정지표에 포함된 평생직업교육 관련 핵심과제 및 일반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핵심과제 5-평생학습계좌제 도입

가. 공약 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 성인의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 및 직무관련 참여율
- 2007년 25세 이상 성인의 1년 동안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9.8%

-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10.5%에 불과

○ 평생학습 참여의 노동시장 이행성과 미흡
-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저조 등으로 인해 평생학습의 결과가 노동시장 성과로 연결되지 못함.

○ 학습 선택권 미흡
- 개인의 프로그램 선택권 제약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학습비 지원과 학습 이력관리의 분산 운영
- 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분야 학습비 지원에 집중
- 교육부는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인정체제 구축에 집중

2) 주요 내용

○ 저소득층의 자활과 군 인력의 재취업이나 대학공부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별 지원 확대

○ 군복무, 사회봉사 등 적립기준에 따라 평생학습 마일리지 부여 및 이를 활용한 대학 등록금 등 교육·훈련 기관 비용 납부

3) 기대효과

○ 학습비 지원과 학습 이력관리를 통합하여 전 국민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지원, 평생학습국가 실현 기여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군 현역병의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기회 보장

○ 학습결과의 누적 관리체계와 국가자격체계와의 연계로 교육훈련-자격-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능력사회 구현

2. 일반과제 7-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가. 공약 내용

1) 배경, 필요성

○ 대학이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으로 지역사회 연계, 시설개방 등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기여 미흡

※ 30~39세 재학률('06년 OECD) : 한국 1.9%, OECD 평균 5.6%

○ 질 높은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을 선호하지만 대학이 제공하는 평생학습 참여는 저조하므로, 대학이 평생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정책 필요

2) 주요 내용

○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시간제 등록 등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을 통해 성인 경력개발 지원

○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대학의 평생학습 기여도 제고·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 대학강의 온라인 공개 등 유비쿼터스 대학시스템 구축

○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내대학 확대·육성

○ 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필요: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평생교육법시행령」 등의 개정 검토

3) 기대효과

○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학습자원과 학습 네트워크, 개방적 학사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기능 변화

○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의 주말대학, 사내대학, 성인교육과정 등 넓어진 대학 문호를 통해 질 높은 평생교육 참여,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나. 시사점

○ 앞에서 제시한 새 정부의 평생직업교육분야 국정과제는 2005년 이후 추진해 오던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 따른 '협약에 의한 특성화 고교 육성', 학생들의 일과 학습의 연계를 강화하는 '취업약정제', '기업-공고연계맞춤형 인력양성제도', 생애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방안 추진 등에 기저를 둔 과제들임.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되는 과제들의 정책적인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앞서 제시한 추진 계획안의 적절성과 추진을 위한 세부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었음.

○ 특히 '사내대학 활성화'의 경우 국정과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근로자의 계속교육 기회 확대, 마이스터고 도입 방안과의 연계 측면에서 활성화 방안의 수립 필요성이 대두됨.

제3절 연구 내용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연구 내용은 국정과제별 기초 추진 계획의 이슈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등 기관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제별 중점 연구 내용을 조정하여 추진한 것임.

1.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

○ 사내대학 추진 배경

○ 사내대학 현황

○ 사내대학 활성화 저해 요인

○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

○ 기대효과

2.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방안

○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배경

○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현황과 주요 문제점

○ 주요 추진과제

3.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자격과의 연계 방향

○ 평생학습계좌제의 추진 배경

○ 평생학습계좌제의 근거와 개념

○ 평생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계 방향

제4절 연구의 방법

1.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 사내대학,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운영 실태 등과 관련되는 문헌, 정책 및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분석

○ 평생교육기관 관련 DB 자료 수집 분석

2. 면담 및 사례 분석

○ 목적 : 3개 국정 과제별 운영 가능성 및 추진 전략 탐색

○ 방법 : 3개 국정 과제별 현장 운영 현황, 사례 분석을 위해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실시

○ 참여자 : 연구진, 정책 담당자, 전문가 그룹 등

3.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협의회

○ 목적 : 3개 국정 과제별로 관련 정책 운영 실태, 새로운 정책의 방향, 추진 가능성 및 전략(안) 수립

- 각 국정과제별로 추진 방향 설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관련 정책의 추진 방안 수립이 용이하였음. 그러나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정책 등은 부처간 협의 및 방향 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방안 수립에서 방향 제시로 범위를 축소하였음.

○ 구성 : 3개 국정 과제별로 정책, 현장 운영, 관련 학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운영 방법 : 연구내용에 따른 주제를 설정하고 기본 자료 제공, 관련 자료 및 정보 공유, 협의, 추진 전략 및 방안 수립 등

제5절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 각 과제별 전략 수립 과정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간의 연계 및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새 정부의 평생직업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에 체계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평생직업교육 관련 국정 과제의 방향에 대해 운영 주체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새 정부의 평생직업교육 분야 정책 추진에서 우리 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인식시킬 수 있음.

제 2 장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

제1절 추진 배경

<국정지표 관련 내용 (17대 대통령직인수위, '08. 2. 5)>

Ⅰ. 활기찬 시장 경제
■ 제로베이스 규제 개혁 ■ 신성장 동력 확보

Ⅱ. 인재 대국
■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 핵심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 평생학습의 생활화

□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 지원

○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산업인력 양성제도 구축 필요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활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 제도 운영 필요

□ 기업친화적(Business Friendly) 인재 확보 지원

○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선도하게 될 기업에게 친화적인 인재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법령에 규제받지 않고 기업이 필요에 따라 인재를 양성·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

□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근로자 계속교육 제도 구축

○ 재직근로자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운 후에 전문가로 다시 일하는(Work→Study→Work)' 계속 교육체제 지원 필요

○ 평생학습사회에서 근로자를 위한 '노동시장↔교육 간의 연계체제'(School↔Work Transition) 강화 필요

○ 교육받은 근로자가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동참하는 여건 조성 필요

□ 사내대학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사내대학 운영 실태를 개선하는 활성화 대책 마련

○ 이를 통해 신정부의 인재대국 건설에 필요한 산업체 지원 대책 마련

제2절 현 황

□ 국내 현황

○ 사내대학의 개념

-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일정규모(종업원 2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정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설치 가능

- 제도 목적
  - 근로자들의 면학욕구(학위 취득) 수용
  ※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적 성격으로 운영
  - 기업은 근로자의 전문 직무교육을 통해 생산성 향상

- 규정 사항
  - 입학자격 :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함(법 32조1항).
  - 단,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시행령45조)
  - 비용부담 :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법 32조2항).

○ 기술대학의 개념

-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제55조
  - 산업체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과정이 인정되는 교육과정 운영 가능

- 제도 목적
  - 산업체 근로자들의 산업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연

마를 위한 계속적 교육기회 제공

-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

※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적 성격으로 운영

- 규정 사항
  - 입학자격 : 전문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근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법 57조1항).
  - 학사학위과정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근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법 57조2항).
  - 단, 1년 6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시행령65조)

○ 사내기술대학의 운영 사례

- 운영 개요(http://www.lll.or.kr)
  - 2001년 12월 기준 전문대학 과정은 없으며 대학과정이 1개, 대학원과정이 3개 총 4개 과정에 이르고 있음.
  - 대학과정으로는 한국통신(KT)기술대학(e-마케팅과, 전송기술과, IT기술과)이 유일하며, 대학원과정으로는 LG-CNS기술대학원(정보기술학과), 포스데이타기술대학원(정보처리학과), LG전자정보통신기술대학원(무선공학과, 전산학과) 등이 있음.
  - 2001년 12월 기준으로 1991년부터 전문대학과정에서 배출된 인원은 총 2,050명이며, 대학과정은 5,522명, 그리고 대학원과정은 2,050명임.

- 운영 사례 : LG-CNS기술대학원(http://www.lgcns.com)
  - 16개 협력회사 신입사원 총 200여명 대상으로 3개월코스 IT기술교육 3차례 실시. 협력업체 임직원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투게더 런 지원 : LG-CNS 사업파트너로서 협력회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게더 런 (Together Run)' 교육을 별도로 개발

및 지원(2005년에만 총 1,650여 명의 협력회사 직원이 LG CNS의 '투게더 런' 교육 수강)

○ (가칭) 자율사내대학의 운영 사례

- 롯데백화점 사내대학(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
  - '4년제 위탁 사내대학' 운영
  - 80명을 선발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증을 받을 수 있음.

- 빙그레 사내 마케팅 대학(http://news.naver.com/main)
  - 고객의 욕구충족과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는 전사적인 마케팅적 사고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매년 마케팅 대학을 운영
  - 교과과정은 마케팅원론, 심화과정, 실무적용에 이르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테스트를 통해서 평가를 받음.

○ 운영 현황 요약

<표 Ⅱ-1> 사내대학 및 기술대학 운영 개요

회사명 (학교명)	개교 년도	과정	학과명	재학생수(입학정원)				계	비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정석대학 (대한항공) ※기술대학	1988	학사학위	경영학과	26(25)	25(25)			51	
			항공시스템 공학과	22(25)	-			22	
			전자 공학과	-	15			15	
			산업 공학과	21(25)	19(25)			40	
		전문학사 학위	항공시스템 공학과	19(25)	-			19	
			전자 공학과	-	18(25)			18	

<표 계속>

삼성전자 공과대학교 (삼성전자) ※사내대학	1989	학사학위	반도체공학과	반도체공학	27	22	22		71	*현재는 반도체 공학과를 단일학과로 운영
				디스플레이공학	5	10	10		25	
삼성중공업 공과대학 (삼성중공업) ※사내대학	2004	전문학사 학위	조선해양 공학과		30(30)	38(40)			68	
단하대학 (화진화장품) ※사내대학	2009	전문학사 학위	미용학과							*'09년 3월 개강 예정 * 학년별 40명 정원 예정

<표 Ⅱ-2> 유사 대학간 비교

구 분	사내대학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가칭) 자율사내대학
설치 근거	평생교육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제55~5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사 자체
인가권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자율
학위종류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 학사	사내 학위 (학사, 석사 등)	사내 학위
학위인정	국가공인	국가공인	사내공인	사내공인
입학자격	산업체경력 6개월 고졸, 전문대졸	산업체경력 1년6개월 고졸, 전문대졸	고졸, 대학졸	고졸자 등
실시대학	삼성전자공과대	정석대학(대한항공)	LG-CNS 대학원	롯데, 빙그레 등 다수
개교일자	2005. 3.	2000. 3.	-	-
입학정원	40명	100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사내대학의 성과
  - 산업체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의 면학 욕구 수용을 통해 우수 근로복지 조건 조성과 직무향상

교육을 통해 자사의 생산성 제고

- 근로자는 직무능력향상과 학위 취득을 통해 직장 만족도와 헌신도 제고

※ 삼성전자공과대학의 경우 졸업생 130명중('01.3~'05.2) 125명이 재직하여 자사의 핵심인력(Core Manpower)로 활약중

□ 미국 현황

○ 운영 개요(Hearn, 2001)

- 사내대학(corporate university)의 개념 정립
  - "근로자의 교육과 개발을 위한 중점적 보호 전략"

- 운영 현황
  - 1993년 400여개였으나, 2001년에는 2,000여개로 증가하고 2010년까지 3,700여개로 증가 전망

- 학점 인정
  - 초기에는 비학위 과정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학위과정으로 전환
  - 2000년 이후 미국 교육자협회의 대학비진학 지원 프로그램 (ACE/PONSI :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s Program on Noncollegiate Sponsored instruction은 250개 이상의 사내대학 과정(맥도널드, 벨 텔레폰, 포드 자동차 회사 등)을 학위 프로그램으로 평가

- 운영 방식의 전환 : 대학과의 협약 모형 확장
  - 자사근로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하는 산업체가 많으나, 일부 산업체는 간부 대상의 대학원 과정을 인근 대학교와 협약하여 운영하는 사례 증가

- 인텔(Intel)은 자사가 필요한 인력의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Babson College를 통해 근로자들이 MBA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Valencia Community College는 Walt Disney World와 Universal Studio의 직원의 대학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150만에서 2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음.

○ 운영 사례

- 맥도날드 햄버거대학(McDonald Hamberger University)
  - 레스토랑 경영에서부터 경영개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두 9개의 교과과정 개설 : 팀워크나 인사관리, 경영전략, 품질관리,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등 광범위한 교육 이행
  - 매 기당 200명 내외의 맥도널드 레스토랑경영자들이 6~8명씩 한조가 돼 2주일간 합숙훈련을 받으며 해마다 14차례에 걸쳐 약 3,000명이 고급경영자코스(AOC)를 이수함.
  - 고급경영자코스(AOC)과정을 이수하면 햄버거대학 학위증 수여, 미국 교육협회가 햄버거대학의 교육내용을 높이 평가, AOC 이수자들에게 정규대학에서 18시간의 수업을 받은 것으로 학점 인정
  - 출처 : www.incham.net/upfiles/webzine/incham_0512-1.pdf

- 모토로라 사내대학 (Motorola University)
  - Motorola University는 도쿄, 중국 중부 등 세계 곳곳에 17개의 캠퍼스를 운영
  - 400명의 정 교수진, 800명의 시간제 강사를 보유
  - 19개국에서 매년 100,000명 이상이 교육받고 있으며 그중 1/5인 타 회사 직원
  - 출처 : http://www.motorola.com/motorolauniversity

- 제네랄 모터스 사내대학 (General Motors Multiuniversity)
  - Technical Education Program(TEP)의 교육과정
  - TEP의 장점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를 직원에게 제공
  - 수강료 전부를 회사에서 지불하고 수업시간의 절반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출처 : http://www.purdueasia.com/pdf_file/cee_case.pdf

- 디즈니 사내대학 (Disney University)
  - 모든 직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디즈니 대학'의 신입사원 연수에 반드시 참석
  - 디즈니랜드 고유의 사업 환경을 배우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 (예: "사원들은 '캐스팅된 배우'다.", "고객은 '초대 손님'이다." 등)
  - 출처 : http://www.kmonline.biz/journal

제3절 사내대학 활성화 저해요인

□ 제도적 측면

○ 유사한 제도인 사내대학(평생교육법), 기술대학(고등교육법), 사내기술대학(조세특례제한법)간 혼동

○ 특히 기술대학의 경우에는 법인설립 의무화로 산업체의 참여 기피 요인으로 작용

□ 설립 및 운영 측면

○ 입학대상자를 사내대학을 설치한 기업체 종업원에 국한

-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산업체의 참여 애로 요인으로 작용

○ 근로자 200인 대상의 대기업만 설치를 허용하여 중기업/소기업 참여의 어려움.

○ 교육시설, 교원확보 등 설립요건이 엄격하여 설립이 어려움.

○ 현재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학사, 학사과정만 인정하여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 제한
- 첨단산업 종사 사업체의 경우에는 참여 애로요인으로 작용

□ 재정지원 측면

○ 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고용주가 부담함으로써 사내대학 확산에 애로점으로 작용

○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교육비 환급이 이루어지나 지원 규모 미흡
- 직접교육경비(강사료, 교재료 등)는 환급대상이나 기타 실습투자비(교육시설비, 실습장비구입비)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 환급율(노동부 고시) : 현행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100%

※ 삼성공대 환급율('05) : 환급대상 항목경비의 43.3%(총경비의 28.7%)

제4절 사내대학 활성화 방안

□ 관련 법령의 정비

○ ‘고등교육법’ 55조에 따른 기술대학을 ‘평생교육법’ 32조에 따른 사내대학으로 일원화

※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에 따른 사내기술대학이 사내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사항 개정

□ 사내대학 운영 형태의 다양화

○ 사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설립 허용

- 당해기업과 협력기업간 컨소시움을 통한 설립
- 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개정

○ 산업단지를 통한 설립 허용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5조에 따른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통한 설립 허용
- 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개정

○ 해당 사업체의 인력개발 사업 통합관리 기회 제공

- 사내대학이 사내대학은 물론 ‘고등교육법’ 40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에 따른 계약학과의 업무를 통할·관리하도록 지원
- 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개정

○ 대학원 과정 운영 허용
- 학문중심의 과정이 아닌 현장 고급기술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운영
- 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개정

□ 규제 완화 : 설립 및 학사제도 관련 조항 개정

○ 설치 기준 완화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5조(사업장의 범위)에 따른 "종업원 200명 이상"의 기준을 "당해 사업장 및 협력업체의 사업장 종업원 200명 이상"으로 개정

○ 입학자격 삭제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근무자" 조항 삭제
- 학년도를 대학별 자율화하고, 학칙에 명시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3조(사내대학의 학년도·학기 등) 개정

○ 겸임교원, 전용시설 등 확보 기준 완화 검토
- 현행기준(공학계 학생 1인당 기준면적 15㎡, 교원 1인당 학생수 20명)을 개정(공학계 학생 1인당 기준면적 10㎡, 교원 1인당 학생수 40명)

□ 재정지원 확대

○ 노동부 고시의 고용보험기금 지원금 확대
- 환급대상 항목의 확대 및 환급율 상향 조정
- 환급대상항목 : 인건비, 교재비, 실습재료비, 일반운영비, 기숙사비
- 환급율 : 현행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100%에서 사내대학 운영하

는 사업체 및 컨소시움에 100% 환급

○ 사내대학 운영 사업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 공제)에 따라 사내대학을 통한 인력개발에 대해 당해 사업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

○ 실습실 구축 등 사내대학 시설투자비 국고 지원
- 교과부의 고등교육재정 재구조화 실시 시점('09)에서 관련 재원 확보

○ 대학대상 정부주처 지원사업에의 참여 기회 허용

□ 마이스터 고교 졸업생에 대한 우대(장기 추진 과제)

○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마이스터 고교 졸업생에 대한 우선 입학 기회 허용
- 마이스터 고교 설치 후 사내대학과 협약 체결 추진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5조(사내대학의 입학·편입학 등) 규정에 관련 조항 추가

제5절 기대효과

□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에 필요한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 가능

○ 사내대학 확대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활용하는

여건 마련

○ 규제 완화를 통해 사내대학 확대 여건 조성 가능

○ 우수 사례의 보급을 통해 기존 대학의 교육 개선 견인 역할 수행 가능

□ 평생학습사회에서의 근로자 계속교육 제도 구축

○ 재직근로자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운 후에 전문가로 다시 일하는(Work→Study→Work)' 계속 교육체제 확립 가능

○ 일터와 학습터의 통합을 통한 근로자의 학습 효과와 이를 통한 산업체의 생산성 증대 가능

□ 긍정적 노사관계 구축

○ 재직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개선은 물론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사의 상생(Win-Win) 기회 구축에 기여 가능

제 3 장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방안

제1절 추진 개요

□ 인재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국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통한 인재육성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지식기반사회에서 국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평생학습 참여는 여전히 저조

○ 대졸 신규졸업자의 취업난 가중에 따라 이들의 취업능력 제고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 점증

- 노동시장의 채용 관행 변화에 따른 청년 실업 증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필요

□ 인구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성인의 평생학습 요구 증대

○ 재직 근로자의 자기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필요
-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조기퇴직, 전직, 이직 증가
- 전직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 점증

○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출산율의 하락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교육과 훈련 수요 증가
-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고령자, 퇴직자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로 인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필요

□ 정부의 국정과제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가 부각되고 있음.

○ 2008년 2월 5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대 국정지표와 192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인재대국'을 국정지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2008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가 신임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에 추진하게 될 업무에서 직업교육의 발전과 연관을 맺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강화 정책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시사점 도출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새정부는 '인재대국'라는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강화'를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음.

○ '인재대국'의 국정지표에 포함된 평생직업교육 관련 전략과 과제는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의 국정지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평생직업교육 관련 과제들은 전혀 새로운 정책 과제라기보다는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평생직업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추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 우리나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관련된 평생학습에 저조한 참여율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근로자들의 학습기회 확충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고등교육기관으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등이 포함되지만 이 연구는 성인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에 중점을 두어 직업교육의 중추기관인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수준을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2절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현황과 주요 문제점

1. 환경적 요인

□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학습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취업과 고용, 삶의 질 추구, 일과 삶의 조화,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등 보다 다양한 욕구로 표출됨.

○ 이에 따라, 취업형태별, 계층별 평생교육 기회와 접근, 그리고 결과의 차이는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개인의 자아실현의 기회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식과 기술개발 주기의 단축, 성인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의 필요성 증대로 인한 평생학습의 수요의 증가

○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평생직업교육 요구 증대
- 노동시장의 채용 관행 변화에 따른 청년 실업 증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지원 필요
-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인해 20~30대의 이직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능력을 갖춘 이들의 전직과 이직을 지원할 체계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 필요

□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변화되고 생성되는 성인학습자들이 자기개발, 전직과 이직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기업의 직원 대상 교육훈련에 대한 관점과 정책이 무척 다양하여 기업체 규모별 문제점이 다르게 나타남.

□ 평생학습 투자 미흡

○ 우리나라 GDP 대비 정규교육기관 투자는 7.2%(2004년, OECD)로 OECD 평균 5.8%보다 훨씬 높고 OECD 회원국들 중 2위로 정규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무척 큼.

<표 Ⅲ-1> OECD 회원국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2004년)

(단위: %)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핀란드	3.9	1.8	6.1
프랑스	4.1	1.3	6.1
독일	3.5	1.1	5.2
이탈리아	3.4	0.9	4.9
일본	2.9	1.3	4.8
한국	4.4	2.3	7.2
영국	4.4	1.1	5.9
미국	4.1	2.9	7.4
OECD 평균	3.8	1.4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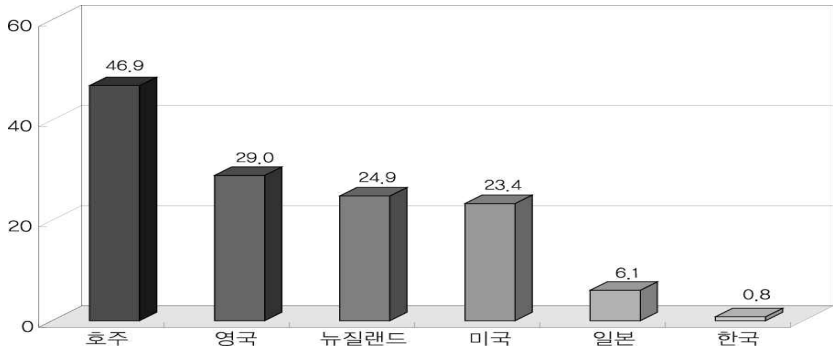
자료 : OECD(2007),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형편임.

-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예산 비중 0.8%
  - 호주 46.9%, 영국 29.0%, 뉴질랜드 24.9%, 미국 23.4%

[그림 Ⅲ-1] 주요 국가의 교육예산 대비 평생교육예산 비중

(단위: %)



주: 한국은 교육인적자원부 · 노동부 예산을 모두 포함.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만으로 대비하면 0.04%에 불과.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4). 「한국의 평생교육 수준 진단」.

○ 청년층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취업률 향상을 촉진해야 할 형편임.

2.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체제 현황

□ 대학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기대가 되는 곳이지만 성인학습자를 유인할만한 양질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공급자 위주의 학습제공이 되고 있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성인들의 대학 평생학습 참여 기회 저조
○ 인적, 물적자원이 확보되어 있는 질 높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을 선호하지만 대학이 제공하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 필요

<표 Ⅲ-2> 교육훈련 받은 기관과 향후 희망 기관 비율(2005)

(단위: %)

구분	사내훈련	기 업 부설기관	산업교육 전문기관	대학	민간 훈련기관	공공 훈련기관	기타
훈련받은 기관	24.2	10.0	11.2	3.3	17.1	6.6	27.5
희망 훈련기관	11.6	8.2	18.2	18.6	15.3	21.1	7.1

자료: 박태준 외(2005)

□ 성인학습자를 위한 입학제도에 대한 배려 부족과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부족 등의 장애 요인으로 성인들의 대학에 접근이 어려움.

○ 성인학습자를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자격증과정, 단기연수 등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에서 활성화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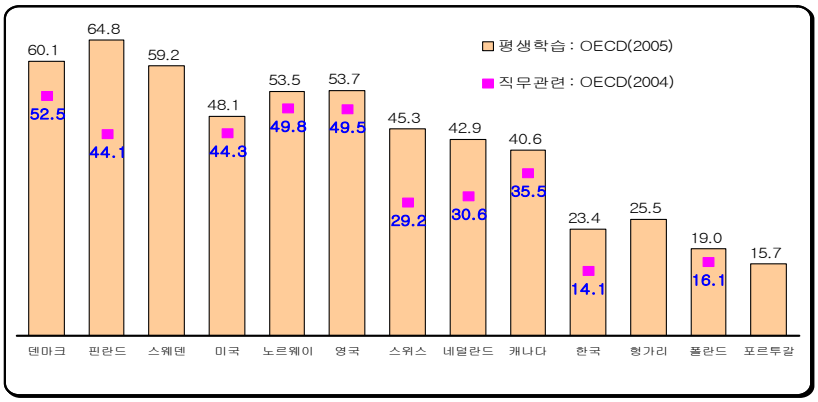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의 비체계적 운영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만 중산층 여성을 대상으로 취미교양과정에 중점을 두어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여 직업능력개발 과정이 등한시되는 경향임.
- 비체계적 교육과정 제공과 평가인정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음.

□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현장적응력 부족에 대하여 work-to-school 체제 보완과 강화 필요

○ 대학은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향이므로 성인근로자들을 위한 실용적 현장지향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력 필요
- 산업대학교조차 성인의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학문중심 교육 지향 추세

[그림 Ⅲ-2] 평생학습에서 직무관련학습의 비중 국제비교



주: 25~64세 기준 국제성인문해력조사(IALS)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4 사회통계조사 결과.
자료: OECD(2004),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OECD(2005). Promoting

□ 평생직업교육에서 대학교육의 실패를 보완해 주는 역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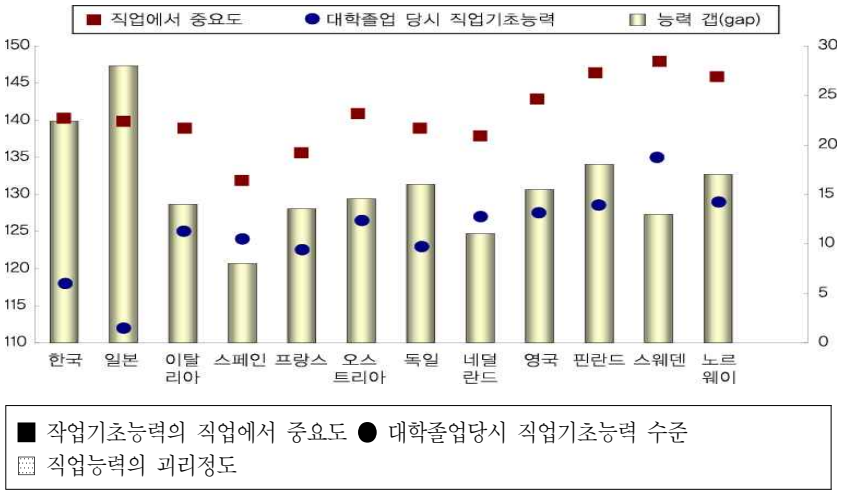
○ 기업체에서 대학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대학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 부족을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들고 있음.

○ 대학 진학률은 4위이지만(2008) IMD 조사에 의하면 교육 분야 경쟁력 35위(2008년),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대학교육경쟁력) 2006년에 52위(61개국 중)에 불과

-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도는 55개국 중 53위(2008),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 50위 → 대학 교육은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함.
- 국가경쟁력 55개국 중 31위인(2008) 것과 비교하면 대학교육 경쟁력은 타 부문보다 더욱 저조하여 교육의 질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청년실업의 증가 원인은 대체적으로 경제 불황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청년의 고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미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평생직업교육체제에서 대학교육의 실패를 보완해 주는 역할(기업체 요구의 지식・기술・태도 교육) 필요(정태화, 2007)

[그림 Ⅲ-3] 직업기초능력의 괴리 정도 국제비교



주: 우리나라는 2001년 대학 졸업생에 대한 2005년 조사이며, 다른 나라는 1994/95년 졸업생에 대한 1999/2000년 조사.
자료: 채창균 외(20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Ⅰ)』.

○ 2005~2015년에 대학 졸업자 54만 7천명이 초과공급 전망이며(장창원 외, 2006),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가 두드러진 현상이 되고 있음.

○ 청년실업률과 실업자 8.5%, 393,000명,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212,000명(부족률 3.53%)(나영선 외, 2006).

- 일자리와 전공의 불일치 응답률은 57.3%이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수준 보다 최종학력이 높다는 과잉학력 응답률이 22.8%로 나타남(한국노동연구원, '05).

□ 교수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 대학에서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교수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 수업 시간, 기간 등을 제공하는 교수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인사상의 보상 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고등교육기관 간의 전통적 역할과 기능 분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blurring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정태화, 2008).

○ 전통적으로 학문중심적 교육을 실시해 온 일반 4년제 대학이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취업준비를 강조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성인학습자들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담당할 기반이 갖추어짐.

○ 2~3년제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전공심화제의 도입을 계기로 일반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음.

3. 기업체의 평생학습 지원체제

□ 직원 교육훈련에 대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정 상이

○ 대기업(고용 규모 1,000명 이상)은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대학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

○ 중소기업(고용규모 300명 미만)은 회사의 사정이 열악하여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여력이 부족함(최지희 외, 2007).
- 성인근로자 학습 지원 정책 미흡
- 중견기업 (고용규모 300~1,000명)은 자체 직원 교육훈련을 실시할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로부터의 중소 영세기업 보호 대상도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임.

□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학습결과 인정체제 미흡

○ 교육훈련 후 향상된 직무 분야에 적합한 업무배치, 승진, 임금상승 등의 인센티브 부족

○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며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가 기업체에 즉각적 이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

○ 교육훈련의 혜택은 상위 직급자에게 기회가 더 많은 실정이며, 기 성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여 실질적 직무능력 향상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회사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 대한 incentive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대체로 상위 직급자에 대한 포상의 의미를 갖는 교육훈련이 많아 교육훈련 그 자체가 혜택인 경우가 많음.

○ 직업능력개발의 기회가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 필요

□ 재직자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배려 부족

○ 성인학습자들은 직장과 학업의 병행,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등으로 고등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부족

○ 취업자의 경우 회사에서 학습을 위한 승낙을 받기 어려운 분위기
-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직장내 지원의 필요성

○ 대학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접근성 미흡

제3절 고등교육기관 평생학습 기능정립의 효과성 및 필요성 논의

□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체제의 중요성 부각

○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제도 즉 work-to-school은 학업 종료자가 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에 직업능력개발 등의 목적으로 다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평생학습 등 광의의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는 것

- 평생직장의 시대에서 평생직업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재직근로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과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증대
-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강화하는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더욱 필요한 추세임.
- 지식기반사회는 노동시장에 진출한 취업자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학교로 접근하는 기회가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인프라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work-to-school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평생에 걸친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시대에 지식기반을 갖춘 대학이 평생교육 공급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당위성 존재

○ 다양한 평생학습기관들 중에서 대학은 학습에 필요한 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정보자원 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평생학습기관 중 선호도가 높은 평생교육시설이어서 학습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실제로 대학이 제공하는 평생학습은 매우 저조하여 개선이 요구됨.

○ 고등교육기관은 재직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이 보유한 지식과 학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됨.

-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대학이 개인의 평생직업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성인학습자 인구 흡수 역량

○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대학이 상아탑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요구

- 대학의 기본적 기능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능임. 또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이 출산율의 감소와 맞물려 대학교육 기능의 변화가 요청됨.

○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서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발전(Trow의 대학 발전론)

- 성인학습(andragogy)와 대학(university) 두 용어의 합성어인 성인학습대학 Andraversity로의 변화 발전 필요
- 대학이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으로 치중되어 있어 지역사회 연계, 시설개방 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기여 미흡
  - 30~39세 재학률(OECD, 2006) : 한국 1.9%, OECD 평균 5.6%
- 성인의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12.7%
  - 덴마크 52.5%, 미국 44.3%
- 평생학습 참여 희망률 58.7%(통계청,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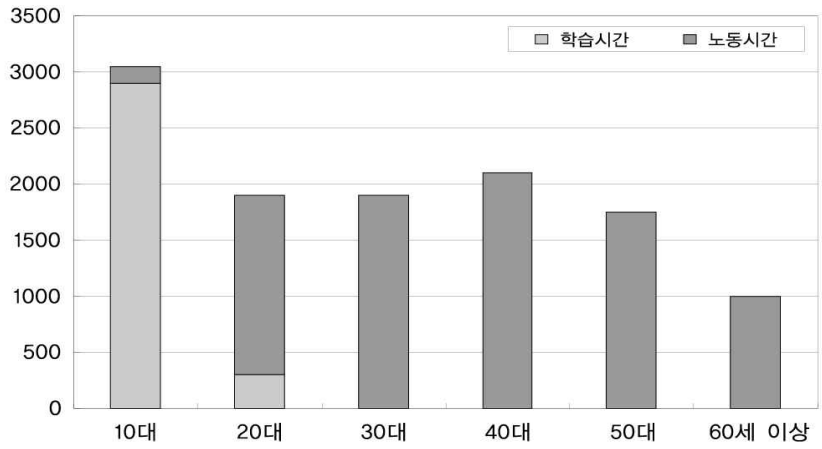
□ 총 학습량을 인생의 단계별로 균등 배분 추진

○ 10대에 학습량이 가장 많으며 20대 중반까지의 학습이 단절된 후 전생애에 걸친 근로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성인의 학습시간 부족과 노동시간 과중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재배분하여 학업과 일이 병행되도록 혹은 순환되도록 해야 함.

[그림 Ⅲ-4] 연령별 주당 학습시간과 노동시간

(단위: 분)



자료: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

□ 대학은 학점과 학위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에 기여

○ 대학은 교육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아 일정 학점까지 누적이 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학위 취득은 성인학습자에 가장 큰 인센티브로 작용함.

○ 고등교육기관이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요구와 산업체의 인재 양성의 수요 충족 필요성 증대

- 지식기반사회에서 개인의 평생학습권을 존중하고, 개인과 기업의 평생학습과 능력개발에 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의 구축과 제도적 기반 확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사회적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함.

□ 인구구조의 변화로 대학은 비전통적 새로운 유형의 학생으로 성인학습자를 모집하도록 변화하고 있음.

○ 고등교육 공급의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입학자원이 감소하면서 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적 위기론 대두

○ 따라서 대학은 성인들을 학생으로 수용해야 하는 문제와 동시에 재정 압박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비전통적인 학생을 모집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

○ 대학은 이제 전통적 입학자원인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감소로 성인근로자의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주요기관으로서 재구조화와 기능 변화를 필요로 함.
- 전문대학 미충원율('05) : 수도권 3.1%, 지방 26.2%
- 대학 미충원율('05): 전체 8.9%(전남 33.9%, 강원 21.5%, 광주 19.8%, 전북 17.5%)

○ 비전통적 성인학습자: 성인 근로자, 성인 구직자, 노인, 여성, 저학력자, 저능력자 등

○ 25세 이상 성인학생의 비율
-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대학의 50% 정도 (OECD, 2002)
- 한국의 경우 30% 미만, 기업체의 재직근로자 비율 20% 미만

□ 성인학습자들의 고등교육 참여가 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줌.

○ 성인의 고등교육을 통한 임금상승의 효과는 전반적 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인학습이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최상덕, 2008).

- 대학 교육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 지위에 있는 성인들이 많으며 이들 정규직 임금근로자에게 많은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음.

□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work-to-school로 완화

○ 우리 사회는 학벌사회라는 강한 특성으로 고학력 지향 현상이 강함.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률은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임(2007년, 84.7%).

- 고학력화의 진전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진학률을 기준으로 하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 경로의 경직성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음.
- 급속한 고학력화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경로를 경직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평생학습의 활성화로 학습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work-to-school을 원활히 함으로써 school-to-work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수요와 공급이 제한적인 평생학습시장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 필요

○ 고학력 시장에는 시장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나 평생학습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원리가 원활하지 않음.

- 고학력 시장에서는 자발적 수요와 경쟁적 공급이 원활하지만 취약계층, 중견기술자, 생산직, 저급 관리직 종사자 등을 위한 성인학습 시장에는 평생교육상품의 공급과 수요가 제한적임.
-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실정임.

제4절 주요 추진과제 및 강화방안

□ 대학이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학절차(access), 학습과정(process), 노동시장으로의 이행(transition) 과정에서 성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배려, 교육과정의 질 관리 강화, 대학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필요

1. 지식기반사회의 산업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학습

□ 지식기반사회 산업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분야의 프로그램 제공

○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고용가능성을 높이도록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함.
- 성인근로자들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근로자의 초기교육(initial education, 최초 노동시장 진입 전의 교육), 적성, 학업능력 등을 고려

○ 직무능력개발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연결이 되어야 하므로 학습자에게 해당 직업능력이 변화해 나가는 방향을 인지하도록 함.
-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되 전통적 산업분야의 기술을 upgrade하고 유망산업 유망직종 분야와 연결이 되도록 함.

□ 성인학습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로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대학이 지닌 지식기반을 기본으로 지역 주민과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개발해 나감으로 대학의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성인의 평생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의 질관리 체계화
- 프로그램의 대상, 직종 등에 대한 명확한 수요 조사 실시(지역 학습자 및 지역산업체 대상)
- 해당 직종 중심의 직무분석에 근거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내용 및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전략
- 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보완

2.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적합성 강화

□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성인학습 과정의 정규, 비정규과정 내에서 현장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효과 제고

○ 산업체 근로자의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한 대학 평생학습 참여

○ 산업체 현장과 밀접한 교육훈련 커리큘럼 구성
- 성인학습과정에 실무 현장 전문가, 산업체 인사 등과 협의
- 인턴십, 현장실습, 실험실습 강화, 취업알선 강화
- 학업과 취업의 동시 추진이 가능한 주문식교육과정, 계약형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등 확대 추진
- 자격증 취득과정의 활성화

□ 산업체 인사와 대학 교수의 교류 강화

○ 산업체 인사를 강사, 겸임교수로 활용
- 산업체 경력자를 교원으로 채용

-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자 혹은 조기퇴직자 중에서 선별하여 일정기간 연수를 거쳐 교수인력으로 흡수하도록 함.

○ 대학 교수를 산업체로 일정기간 파견 근무시켜 산업 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현장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기존에 실시 중인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
- 산업체 파견을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교수에 대하여 교수 업적 평가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3. 대학 프로그램의 다양화

□ 정규학위과정, 비정규과정, 자격증 과정, 단기연수과정, 외국어 능력향상과정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과정을 제공하도록 함.

□ 정규학위과정에서는 전문학사학위과정(전문대학), 학사학위과정(4년제대학, 전문대학 전공심화제), 석·박사학위과정(대학원) 등을 제공하여 학력 수준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 성인학습자에게 학위취득기회 확대
- 고등교육기관 정규과정 입학문호 확대
- 전문대학의 경우 고졸자 중심 학사운영 체제를 재직성인근로자 중심으로 개선

○ 산업체 근로자들의 학위취득기회 제공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 등

○ 계약학과 및 산업체 위탁 학과제도 등은 주로 적령기의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됨.

- 정규과정 내에 성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성인의 학위 취득기회 확대

○ 직업 경력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지식 등에 대한 선행학습의 인정 제도화

□ 비정규 과정의 다양화

○ 대학의 비정규 과정 내 평생직업교육 강화는 각 집단별로 자아실현과 직업능력개발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전직자, 이직자 등 재직자와 비재직자를 위한 과정을 제공하되 대학의 지식기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이 비교우위를 가진 과정 중심으로 제공

○ 비정규과정(특별과정), 단기연수과정 등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제공

○ 비정규 과정의 학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여 정규학위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정지선 외, 2003).

○ 수준 구분이 없는 단기연수 프로그램이나 단기 세미나 등은 성인의 학습과정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단기연수 프로그램은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북구학습써클(Nordic Study Circles), 스위스의 학교클럽(Migros), 영국의 EDAP 프로그램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자격증 과정 운영

○ 성인학습자들이 현직, 취업, 이직, 전직, 승진 등을 대비하여 관심 분야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함.

- 학습과정에 따라서는 이수한 후에 당해 대학 또는 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도록 운영
- 학력과 무관하게 취득하고 개인의 경쟁력 향상과 평생학습의 지평 확대

○ 자격증 과정에서 이수한 결과를 학점으로 환산해주는 기제 마련
- 성인의 교육훈련의 결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등을 부여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평생학습 과정 중에서 직업교육과정은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 코스를 운영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인증하고 학습에 대한 유인가 제공
-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배양하며, 학력과 직업능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의 실용성을 제고하도록 함.

○ 모듈식 교육과정 구성으로 자격증 취득 및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점누적을 통한 학위취득이 모두 호환성있게 가능하도록 운영

□ 외국어 능력개발과정 운영

○ 모든 직업군에서 필수적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 중요한 직업능력이 되고 있으며 모든 입사시험 등의 필수과목임.
- 현재 대부분 사설학원 등에서 고비용 교육비 지출

○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을 위한 외국어 능력개발과정 운영하여 저렴한 학습비용과 학습의 질적 보장필요
- 대학의 비정규과정, 단기과정, 혹은 부설 어학원이나 평생교육원 활용

- 전문대학 관광영어, 실무영어 과정 등을 활용하는 방안 필요

○ 수준별 등급화를 통한 교육 실시와 교육 결과에 대한 인증체제 구축

4. 성인학습자 접근방안

□ 성인학습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 교수학습센터에 성인학습 프로그램 컨설팅 기능 강화
- 개인면담을 통한 학습자의 적성, 희망, 학업 수준에 적합한 정보 제공
-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목표,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입학전형의 자율화

○ 대학의 성인학습과정에 성인학습 인구가 자유로이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되기 위하여, 각 대학 자율적 입학전형제도가 마련되도록 해야 함. 대학의 문호를 보다 넓게 개방하기 위하여 입학 자격 조건을 완화함.
- 대학의 독자적 모집을 가능하게 하며, 수업일수 규정 완화
-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시간제 등록 등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을 통해 성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구체적인 입학 전형제도는 각 대학 자율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접과 포트폴리오 등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학업에 대한 의지와 계속교육에 대한 목표,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입학을 허가함.
- 교육훈련에 참여의지가 있는 성인들이 무시험 전형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 마련. 최종학력증명서와 학업계획서 등을 심사 자료로 대체

○ 평생학습과정의 인원과 전공분야 등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비 부담의 적정화

○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성인학생의 등록금의 1/2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나머지 1/2은 소속 회사 부담 혹은 학습자 개인 부담
-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정부가 세제지원으로 충당
- 자기부담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

5.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적정화

□ 시간제 등록제도(Part-timer)의 활성화 및 다양한 학습제도 운영

○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성인들의 시간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시간제 등록제도 확대

○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전일제(full-time), 시간제(part-time), 야간수업, 주말반, 단기집중, 단기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성인들의 학습 요구에 민감하게 능동적으로 대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
- 대학의 독자적 모집을 가능하게 하며, 수업일수 규정을 완화하고, 주말과정 운영 등 시간제 등록제를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기간 취업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4년제 대학의 '취업자 특별전형'을 입학정원 내로 확대 권장하고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계획

- 성인학습자의 시간제 등록 등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을 통해 성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시간제 학습을 통해 정규학위과정으로 연결되어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 개방성을 원칙으로 한 대학 평생학습 간 취득학점의 상호 누적

○ 성인학습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서 이수하고 학점 취득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함.
- 대학의 평생학습은 개방성을 원칙으로 함.
- 특정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타 대학에서도 인정하도록 대학 간의 상호 인정과 누적이 가능하도록 함.
- 평생학습과정에 대하여는 대학들이 수강 대상자를 개방하여 다양한 학습자의 교육과정 선택이 가능하도록 운영함.

□ 효율적 학습방법 선택

○ 학습자들의 특성, 시간, 장소 등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하여 성인의 특성과 생활을 평생학습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방법의 다양화 도모
- 학습장소도 필요에 의하여 학생을 찾아가는 수업,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수업, 온라인을 이용한 수업 등 탄력적으로 운영
- 학습자들이 있는 인근의 평생교육기관이나 공공장소 등을 이용하여 출장 강의도 실시하도록 학습방법의 유연성과 다양성

○ 토론학습 등 학습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방법 채택. 현장 근로 경험이 많은 성인근로자들이나 사회생활을 통하여 많은 지식이 습득된 성인들에게는 토론 학습도 적절한 학습 방법이 됨.

6. 대학 평생교육원 운영의 체계화

□ 대학 평생교육의 수익성 중시와 대중성 부족

○ 비교적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대학 내에서 평생교육원의 수강료에 의한 수입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일차적으로 투자되지 못함.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교육의 수준과 결과에 대한 인정 미흡하여 학점·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어 학점은행제라는 관료적 매커니즘을 이용하려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대학의 평생교육이 다양한 교육대상에게 대중화·보편화되지 못함.

□ 비정규과정으로서의 체계성 부족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의 임무와 역할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평생교육기관의 업무는 대학의 정규 업무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기관이 대학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확고하지 못함.
-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대학과 사회의 경계선상에 있는 주변적 존재적 특성

○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습 과정들은 결과에 대한 하나의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교양과정이나 흥미 위주의 대중성에 기반하고 있음.

○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교육 과정·인원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평생교육 특히 성인 평생직업교육에 기여하는 바는 기대에 미치

지 못하고 있는 형편

○ 따라서 평생교육원을 대학 부설이 아니라 대학의 정규 영역으로 자리 매김 할 때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임.

□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직업교육훈련 강화

○ 평생교육법 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2항은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상 집단의 변경: 중산층 주부 대상의 교육기관을 탈피하여 중고령자, 고학력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 연계형 직업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관으로 발전

○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질관리 체계화
- 영리추구의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work-to-school 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중심의 교육과정 제공
- 평생교육원 운영의 정비와 체계화 필요

7. Blended Learning 확대

□ 평생학습 참여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시간의 장벽을 넘기 위하여 학습공급자는 유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지(Anytime, Anywhere, Anybody) 학습이 가능하도록 마련되어야 함.

□ 사이버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이 학습시간을 선택하여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널리 선호되고 있음.

○ 대학 강의 온라인 공개 등 유비쿼터스 대학시스템 구축

○ 전통적 수업 방식인 강의식 교수법에서 벗어나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표되는 on-line 교육과 출석식 수업 off-line 교육을 혼합한 blended learning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임.
- 이론 중심의 학습, 기본/공통과목 학습방법으로 on-line 교육 채택
- 보충학습이 필요한 경우와 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 면대면 출석 수업 off-line 교육 실시
-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blended learning 우수 사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정부가 보상을 하도록 함.

○ 성인학습자에게 시간 부족으로 인한 접근 제한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음.
- 온-오프라인의 blended learning 통해 질 높은 평생학습 참여,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 영국의 산업대학 (University for Industry)은 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체 근로자들을 학습에 참여하고, 자신에 맞는 학습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산업대학의 교육 경쟁력이 되어 평생학습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함.

8. 대학의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체제 구축

□ 학습자를 위한 인센티브

○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학위 취득이 대학에서의 학습에 대한 가장 큰 유인이 될 수 있음.

○ 회사의 학습휴가제도의 활성화 방안 필요
- 유급휴가제도의 체계화와 활성화 필요

• 학비, 교재비, 교통비 등의 교육비 지원

- 고용보험 기금 활용

○ 학습결과에 따른 직장 내에서 직무재배치, 승진, 보수지급, 임금상승 등의 제도화 필요

- 직업능력개발로 전직, 이직 등 가능

○ 고학력화 현상에 따른 대학원 (특수대학원 등)의 성인근로자 접근을 위한 특수대학원제도 체계화 필요

-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 필요

□ 대학 교수를 위한 인센티브

○ 산업체 인사를 겸임교수 혹은 교원으로 활용하고,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적절한 혜택을 주도록 함.

○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전문대학에서는 재직근로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교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거나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는 등 대학 나름대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된 경우가 많은 편임.

- 성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실시 경험이 적은 대부분의 4년제 대학교에서도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교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여 승진에 유리하도록 하고, 논문게재를 대체하는 등의 방안 운영 필요

9.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분담

□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학습자원과 학습 네트워크, 개방적 학사운영으

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으로 기능 변화

○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참여 및 학위취득 기회 확대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대학 정규과정 내에서 현장적응력을 높이는 직업교육 강화

□ 대학이 지역 중심 평생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평생학습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지역 중심의 성인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확대

○ 대학 특성화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평생학습 기능을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도 지정 방식이 아닌 각 대학의 지역적 환경, 지역사회의 수요, 대학의 여건 등에 따라 평생학습 실시 여부, 분야, 대상 등을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함.
- 지자체 단위 평생학습도시에 성인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을 중점 지원하도록 함.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도록 운영
- 연구중심대학에서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성인근로자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147개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성인의 평생학습을 담당해 왔으며 향후에도 그 기능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임.

○ 정규과정, 비정규과정 등을 통해 노동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노동시장의 요구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 필요

○ 고등교육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 고학력 성인직장인들을 위한 대학원 수준의 계속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후속 연구 수행 필요
- 고학력화로 성인직장인들이 계속직업교육을 위하여 대학원 단계의 학습 수요 증가하고 있음.
- 고학력 성인 직장인들을 위한 계속교육기관으로 특수대학원을 비롯한 각종 대학원의 교육의 목적, 기관의 종류, 유형, 프로그램, 학생 수, 교수진 구성, 학위수여과정, 결과의 인정, 취업과의 연계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원 교육의 체계화 방안 모색

10. 정부부처의 평생학습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 중심대학 시범 운영사업: 전국민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추진

○ 평생학습 인적 인프라와 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지역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는 평생학습 중심대학 2개교를 시범 운영하고, 2009년도 이후 16개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

□ 노동부의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권역별 직업능력개발 중심대학」 사업 실시

○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의 훈련기회 확대를 위해서 대학과 대기업이 협약을 체결
- 대학이 비학위과정 운영
- 대기업이 사내 전문강사, 기술 노하우, 특수장비 지원
- 노동부가 시설, 장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

□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는 평생학습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추구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며 새정부의 중점 사업 중의 하나임.

○ 고등교육기관은 다양한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기간 취업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의 '취업자 특별전형'을 입학정원 내로 확대 권장하고 장학금 지원을 계획함.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과의 체제 및 제도의 차별화를 통하여 평생학습사회의 원리와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직업교육 제도 운영

□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 강화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관계 법령 마련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생학습 예산 확보, 대학재정지원의 확보, 그리고 직업능력개발기금 활용 방안 등 모색

○ 법령 개정 필요「고등교육법시행령」,「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평생교육법시행령」 등의 개정 검토

□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

○ 현재 중견기업 (100명 이상~1,000명 이하)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재직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보완 필요

○ 중견기업 자체 CDP (직원 경력개발프로그램) 운영 미비를 정부의 지원으로 활성화 필요

제4장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자격과의 연계 방향

제1절 평생학습계좌제의 추진 배경

<국정지표 관련 내용 (17대 대통령직인수위, '08. 2. 5)>

Ⅳ. 인재 대국
3. 평생학습의 생활화
ㅁ 평생학습계좌제 도입과 자격과의 연계 방안
○ 일생동안 능력개발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 평생학습 유인 강화
○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

□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다양한 학습 경험 필요

○ 평생학습사회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의 제공과 관리 필요
○ 학습자의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과 다양한 학습에의 참여 확대

※ 우리 나라 성인 평생학습의 문제점 개선 필요

- 성인의 평생학습 현실은 '낮은 참여율', '낮은 직무 관련성', '낮은 질적 수준', '참여 격차' 등의 문제 제기
- 지속적인 평생고용 가능성의 제고 유지 필요

□ 평생학습 공급기반 확대 및 통합적 교육훈련체제 구축

○ 평생교육센터, 고용지원센터, 교육청,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 지원 전달체계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

○ 정규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평생교육 공급기관에 대한 질관리 및 인증 평가를 통한 통합적 평생교육 공급체계 구축

□ 국민의 평생학습 촉진과 학습결과의 효율적 활용

○ 평생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와 학습경험의 누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 및 계속교육 촉진

○ 개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경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학습결과의 효율적 관리 필요

□ 학습결과에 대한 노동시장으로의 연계 강화

○ 지식기반 사회에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및 직무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촉진 필요

○ 직무 관련 평생학습의 참여 결과를 노동시장으로 연계하여 학습결과의 노동시장 이행성 강화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학습비 지원 및 학습이력 통합 관리를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자립 또는 자활할 수 있는 학습기회 제공

제2절 평생학습계좌제 개념과 운영 현황

1. 평생학습계좌제의 근거와 개념

가. 평생학습계좌제의 근거

□ 국정과제 지표에 근거

○ 평생학습계좌제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학습계좌제(‘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과부’)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노동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리

○ 학습비와 학습이력관리를 지원하고, 학습결과 평가인정과 연계하여 추진

□ 학습비 및 학습이력관리 지원 내용 확대

○ 부처별 추진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고 학습비 지원 대상의 차별화를 통해 전국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확대

- 교과부는 일반국민 중 사회적 배려계층(근로자·구직자 제외)에 대한 성인기초문해, 시민참여, 직무기초소양 등의 학습비 지원 계획
- 노동부는 근로자, 구직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 계획

○ 학습이력관리는 양 부처 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평생학습계좌제의 개념과 내용을 추진하기에는 현행 평생교육법상 한계가 있으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다음에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권두승, 2008).

영역	보완내용
평생학습계좌제 실시에 따른 프로그램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	- 학습계좌 명칭을 평생학습계좌로 변경 -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의 주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구체화 - 평생학습계좌 프로그램 지정·운영
운영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 평생학습계좌 운영의 주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법조항에서 규정함에 관련 내용 반영 - 평생학습계좌의 신청은 본인이 원할 때에만 개설 - 관련 항목 신설에 따른 시행령 항목 변경
프로그램 지정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 평생학습계좌 교육프로그램 등록운영 · 학점은행과정, 독학학위 시험면제과정, 문해교육프로그램 등 기 평가인정 과정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학력인정 교육과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 평생학습계좌 교육프로그램의 지정기준 · 교사 및 강사 : 교사자격소지자 등 필요 인원 확보 · 시설 및 설비 : 학교급별 교육기본시설을 갖출 것 · 학습과정의 내용 : 초·중·고·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평생학습계좌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 및 폐지 통보	

나. 평생학습계좌제의 개념

□ 평생학습계좌제의 개념[1)2)]

○ 평생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법 제23조의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에 기준함. 이 때 학습계좌는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법률상 학습계좌제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개인적 학습경험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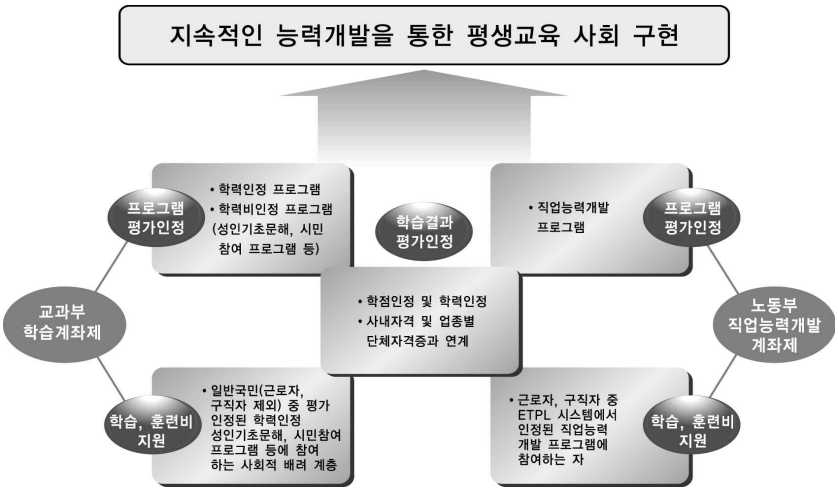
○ 현재 평생학습계좌제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의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경험을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여 이를 학력이나 학습비 지원과 연계시키는 제도’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음.

□ 평생학습계좌제 흐름도(안)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 측면에서 교과부 학습계좌제의 학습이력관리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훈련이력관리의 통합이 핵심임(대통령직인수위, 2008).
- 학습자의 학습비와 학습기회, 학습이력 관리를 지원하고, 학습결과의 누적관리를 통해 평가인정과 연계하여 추진
- 특히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개인적 학습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의 역할 중요

---

1) 최운실(2008).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의 배경과 과제’ 내용을 참조함.
2) 김만희(2008). ‘평생학습계좌제의 이해와 실제’ 내용을 참조함.



<평생학습계좌제 흐름도(안)>

□ 개념적 범위

○ 학습경험 : 평가인정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수강결과와 비형식, 무형식 학습경험이 포함됨.

○ 학습의 인정 및 이력관리 : 다양한 평생학습경험의 인정기준과 인정된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요구됨.

○ 학습결과의 활용 : 개인의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추후 학습의 동기 제공과 학습상담을 위한 자료,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정보로 활용

다.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을 위한 주요 논의[3)]

3)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2008)의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내부 자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자료 재구성.

□ 도입 배경과 추진 방향

○ 교과부의 추진방향 : 다양한 평생학습을 누적관리하여, 학력 및 자격 인정과 연계하고 평생 직업경로 설정 및 취업에 활용하고자 직업기초소양, 민주시민교육 및 학력 취득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

○ 노동부의 도입 배경 : 훈련기관 또는 사업자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훈련 수요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바우처)으로 전환하여 선택권과 자기주도적 훈련 촉진

-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로 개편, 취약계층(실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에게도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기회 제공에 있음.

□ 지원 대상 및 영역

○ 교과부의 학습이력관리 대상 :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학습자(18세 이상)로서 학습계좌 개설과 학습결과의 누적관리를 희망하는 자

<평생학습계좌제 단계별 적용 대상 및 영역(안)>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상	• 실업자 • 저학력 성인	• 기초생활수급권자 • 제대군인 •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 경력단절 여성 • 노인
과정	• 기초문해교육 • 직무소양교육 • 직업능력개발	• 인문교양·문화예술 • 시민참여교육 • 직무소양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	• 평생학습 전 영역

*출처: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재구성.

○ 노동부의 지원대상 :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중 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해 지원

※ '08.9월 실업자 일부 대상 시범실시 후 '09년 이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제대군인 등으로 확대

- 지원수준 : 계좌당 일정한도(예시: 200만원)내에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여 훈련생의 신중한 훈련선택 유도 및 훈련몰입도 제고
- 지원과정 확대 : 직무과정 중심에서 관련 과정, 직무기초능력, 창업 및 직무 관련 교양과정 등으로 확대
- 훈련형태 확대 : 집체 방식 외에 e-Learning, Blended Learning 과정 허용

□ 학습결과 평가인정 범위

○ 학습결과의 인정 범위 확대

- 평가 인정한 프로그램의 이수 결과(과목 이수, 학점 취득, 자격증 등)를 누적관리하여 상응하는 학력취득 요건에 충족할 경우 학위수여

※ 기존 학습계좌제의 학습이력관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 학력 인정에 제한하여 운영하였음. 향후 평생학습계좌제에서는 학력인정 범위를 초·중등학력까지로 확대하여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포함하는 제도로 확대할 계획임.

○ 민간자격, 비형식 학습결과를 포괄한 국가자격체계의 재설계와 연동하여 교육·훈련·자격·학력이 호환 가능한 학습결과 활용체계 구축 추진

○ 누적된 학습결과를 노동시장에서 고용정보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평생학습지원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평생학습 과정 및 운영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체제 도입 필요
- 노동부는 HRD-net 개편을 통해 현행 재직근로자 중심에서 실업자 등

으로 확대·개편하여 훈련 참여자별 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

※ '08.5월부터 HRD-net 개편작업 진행

- 고용지원센터·교육청·평생학습센터 등 평생학습지원기관 간 호환이 가능한 학습이력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학습결과 평가인정체제 구축 방향

- 산업별·업종별 협의체(sector council)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 훈련결과 인증체계 구축 지원
- 학점은행제를 중심으로 학습결과가 학점-학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

※ 고려사항 : 평생학습계좌제의 틀 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결과를 학점, 학력, 자격 등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국가자격체계 등의 규정 고려 필요

□ 공동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 노력

○ 위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교과부와 노동부로 구성한 상설협의체 '평생학습계좌제 협의회(가칭)'를 운영하여 공동협력체계 구축 필요

○ 중장기적인 학습비 지원 예산 확보

□ 시사점

○ 교과부의 학습계좌제는 학습이력 관리와 이력관리 범위 확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카드제 도입은 학습비 지원과 지원대상 확대에 초점을 둠. 학습이력관리 범위 및 지원 대상 부분에서 취약계층과 실업자 대상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경우 여성, 노인 등의 계층에서 중복 부분 발생 가능함.

○ 특히 직업능력개발 관련 학습이력을 노동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별 주관 부처에 관계없이 통용 가능한 학습이력 관리가 관건임.

-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에 학습이력관리의 활용을 위한 공동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산업계와 연계한 인증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함.

2. 학습계좌제의 운영 현황

가. 국내 운영 현황

가-1. 학습이력관리 제도

□ 국내 학습계좌제 관련 제도 운영 현황

○ '95. 5. 31 교육개혁안에서 학습경험의 관리에 대한 탐색적 시도가 제기된 이후 전국민의 평생학습 추진과 학습 경험 관리 노력 추진

○ 국내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제도의 연도별 운영 현황

시기	대상	내용	목적
1995년 5.31 교육개혁안	국민, 취업자	학습경험의 누적 관리	학습경험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1997년 평생교육법	국민	개인적 학습경험의 집중관리	인적자원 효율적인 개발 관리
2007년 평생교육법	국민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	평생교육 촉진,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
2008년 이명박 정부 핵심공약 사항	국민	학습경험의 종합 관리	• 학벌보다 능력에 따라 인정받는 풍토 조성 • 고용시장에 활용 가능한 정보 다양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습비 지원

*출처: 백은순(2008). 평생학습계좌제 추진방향 및 이해에 대한 토론

□ 학점은행제 운영 현황(한국교육개발원, 2007)

○ 학점은행제의 의미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

○ 학점은행제 주요 추진경과

시기	내용
1997년 1월 13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5275호) 제정・공포
1997년 9월 11일	동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548로) 제정・공포 동법률시행령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을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으로 지정
1998년 2월 28일	동법률시행규칙(교육부령 제713호) 제정・공포
1998년 3월 1일	61개 평가인정기관의 274개 학습과목 평가인정 (학사 18개 전공, 전문학사 23개 전공 개설)
1999년 8월 31일	1999년도 하반기 학위수여(학사 25명, 전문학사 9명)
2000년 2월 21일	제1회 학위수여식 개회, 학사 111명, 전문학사 539명
2002년 11월 26일	10개 중요무형문화재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3년 3월 1일	11개 군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4년 3월 1일	6개 원격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6년 3월 1일	20개 간호・보건계열 교육훈련기관 최초 평가인정
2007년 2월 26일	제8회 학위수여식 개최(학사 12,624명, 전문학사 4,177명)

○ 학습자 현황

- 제도 시행 10년차인 2007년 10월 현재 267,345명(1999년도 등록자수의 약 23배)의 학습자가 학점은행제에 등록
- 시행 초기에는 전문학사 취득 희망 학습자가 많았으나 점차 학사 취득 희망 학습자 군이 주종을 이룸.

○ 학점인정 현황

- 2007년 10월 현재 26만 여명의 학습자가 이수한 인정 학점 약 16,309천여 학점
- 학점원별 이수 학점 비율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학점 > 학점인정 대상학교 학점 > 독학학위제 면제과정 > 중요무형문화재

○ 학점은행제 연도별 학습자등록 현황(2007년 10월 기준)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등록자수	11.489	11,732	19,315	21,442	24,924	27,971	42,105	51,522	56,845	267,345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학점은행센터 내부자료.

○ 학위수여자 수 현황

- 학사학위 수여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자가 압도적인 비율 차지함.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공 상의 한계(표준교육과정과 일치하거나 그와 유사해야함), 타전공 학위수여 불가능 등의 지침상 제약을 개선해야 함.
- 특히 대학원 진학 및 편입학 증가세는 학점은행제의 안정적인 정착, 대외적 인식력 제고의 결과라 할 수 있음.

<연도별 학위수여자 수 현황(2007년 10월 기준)>

구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장			총계
	전문학사	학사	소계	전문학사	학사	소계	
1999년도 후기	9	25	34	0	0	0	34
2000년도 전기	539	111	650	0	0	0	650
2000년도 후기	227	143	370	0	0	0	370
2001년도 전기	1,462	267	1,729	23	2	25	1,754
2001년도 후기	334	396	730	19	7	26	756
2002년도 전기	2,562	718	3,280	16	15	31	3,311
2002년도 후기	561	609	1,170	12	108	120	1,290
2003년도 전기	4,398	1,288	5,686	65	153	218	59,004
2003년도 후기	847	1,267	2,114	41	190	231	2,345
2004년도 전기	3.980	2,236	6,216	123	277	400	6,616

<표 계속>

2004년도 후기	686	1,855	2,541	55	312	367	2,908
2005년도 전기	2,981	4,751	7,732	278	376	654	8,386
2005년도 후기	568	4,442	5,010	75	424	499	5,509
2006년도 전기	3,737	7,562	11,299	367	590	957	12,256
2006년도 후기	920	5,321	6,241	60	536	596	6,837
2007년도 전기	4,177	12,624	16,801	248	858	1,106	17,907
2007년도 후기	1,316	8,084	9,400	90	611	701	10,101
계	29,304	51,699	81,003	1472	4,459	5,931	86,934

○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 현황(2007년 10월 기준)

- 기관유형별 평가인정 현황 (전체 494개)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 228개(46.2%)
  - 전문대학 운영 전공심화(특별)과정 합산 : 265개(53.6%)
  - 직업훈련기관 : 69개(14%)
  - 학원(기술계, 예체능계, 사회계, 어학계) : 72개(14.6%)

※ 기관특성 고려시 기술계 학원, 직업훈련원, 고등기술학교, 중요무형문화제 등(494개 기관 중 35.0%)의 평가인정 과목은 직업능력개발 또는 국가기능자격 등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과정임.

○ 전공 계열별 교과목 수

전공계열	인문사회	직업기술	외국어	예체능	계
교과목수 (%)	818(18.5)	2,665(60.3)	330(7.5)	604(13.7)	4,417(100.0)

*출처: 교과부, 한국교육개발원(2007), 시·도교육청 학점은행 상담자료실 담당자연수자료.

○ 학점은행제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개발·고시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계
표준교육과정	14 (27.1)	72 (47.7)	11 (7.3)	27 (17.7)	-	151 (100.0)
교수요목	167 (9.7)	432 (25.2)	354 (20.6)	548 (31.9)	216 (12.6)	1,717 (100.0)

○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 추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격별 학점인정 세부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자격에 한하여 학점인정
- 2008년 3월 현재 자격학점인정 기준 대상 총 573개 자격
  예) 국가자격(정보처리기사, 워드프로세서 등), 개별법의 국가자격(공인중개사, 경기지도사 등), 국가공인 민간자격(탭스, 한자능력급수 등)
- 자격학점 환산은 학위별 자격 학점인정 개수 제한(전공관련 전문학사 2개, 학사 3개까지), 동일직무내 여러 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최상위 자격만 인정
- 학점인정 제외 자격 기준 : 자격취득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요하는 자격, 사회적 인지도에서 학점인정 어려운 자격, 전문대·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자격시험 없이 일정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미시행 자격, 현장근무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고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현행 학점은행제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등 9가지 기준임.

□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사업

○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사업은 1차년도 시범사업(2006년도 9월부터 2007년도 8월)을 종료하였고, 2차년도 시범사업(2007년도 9월부터 2008년도 6월)은 종료할 예정임(한국평생교육학회, 2008).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사업 운영 현황>

지자체	운영 프로그램
광명시	광명시민대학 중 직업능력개발학부 3개학과(표현예술심리치료학회, 실버정보통신교육학과, 어린이도서관학과)
이천시	성인문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표 계속>

삼척시	성인문해교육(기초능력교육), 간병인 및 산모도우미교육(직업능력개발교육), 한국무용(자기개발교육), 인형극 지도자 과정(시민성교육)
단양군	단양관광예술대학(관광 전문학사 학습과목 운영 프로그램 명칭)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점부여, 단양군에서 부여계획
목포시	성인기초문해교육, 3세대 레포츠 파크골프(지도자양성 및 일반인보급과정), 서남권아카데미강좌
순천시	학부모스쿨, 한글작문교실 전문강사 양성, 한글작문교실
칠곡군	칠곡늘배움학교(성인문해교육과정), 아동독서글쓰기 과정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7). 평생학습결과표준화시범운영 결과보고서.

○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사업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각종 직업관련 자격 과정이 지역 실태, 특성과 맞물려 운영되고 있음.

□ 시사점

○ 1999년 학점은행제 도입 후 학점인정 및 평가인정 기관의 다양화가 시도되었음. 전체적으로 집체교육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원격교육기관까지 확대되면서 교육유형이 다양화되었고 교육과정의 표준화 시도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 기관의 다양화가 추진됨.

○ 학위취득 요구를 가진 학습자수 증가로 편입학 확대, 졸업 후 대학원 진학자수가 역시 증가하고 있음. 또한 졸업 후 국가자격 취득 가능한 과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고교 이상의 수준에서 가능한 전공 관련 자격 취득시 학점으로 연계 인증하고 있음.

○ 학점은행제는 학습결과의 체계적 관리와 평가인정체제 구축에 집중되었며, 취득자격과 학점인정의 연계도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로경험 비형식적인 선행학습 경험의 결과를 연계 인증하지는 못함.

가-2. 학습비용 지원제도

□ 우리나라에서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학습비용 지원제도로 운영된 것은 2006년부터 도입 운영 중인 노동부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들 수 있음.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소외계층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나영선 외,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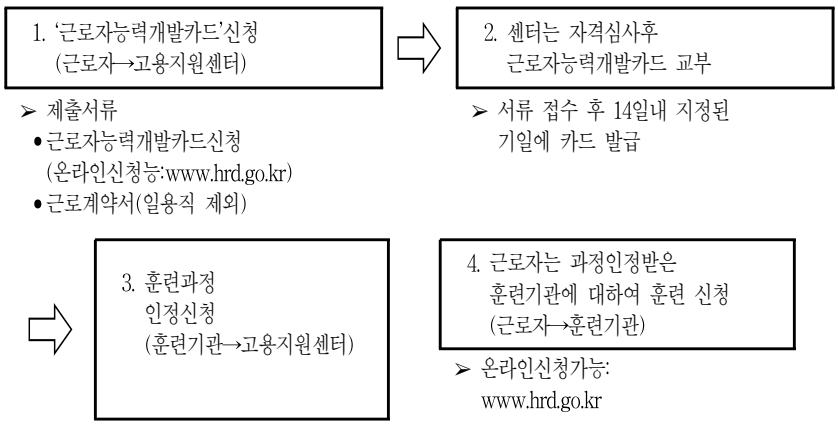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도입 근거: 2005년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대통령 보고를 통해 근로자자율훈련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을 위한 근로자학습구좌제 시범 도입' 발표

- 2006년 10월 제도 확정
  - 대상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 훈련과정 : 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인터넷 원격훈련과정
  - 지원금액 : 1인당 연100만원(5년 300만원)한도 내의 실 수강료 전액

※ 당초 시범운영과 본 사업으로 구분으로 계획됨.

- 2006. 11. 23~ 2007. 2. 28 (본 사업은 2007. 3. 2 시작)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3
  - 예산(2007) : 188억 원(고용보험기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이용 절차>

○ 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학습비 지원 학습계좌제 유관사업

구분	대상수	지원예산	지원기준	내용	비고
직업능력 개발 카드제	29,000명	14,800백 만원	•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자 •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대상자 1인당 각각 보험연도 내 100만 한도 • 총 지원 금액은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수혜대상 단계적 확대 예정. '08년 9월 실업자 일부 시범실시 후 청소년 제대군인('09년), 중소 기업근로자('10년), 비정규직 ('11년) 등으로 확대하여 '11년에 전면 실시 계획
근로자 수강 지원금	258,760명	56,150백 만원	훈련 중,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 이직자, 40세 이상자, 상시 사용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 고용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 자	•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가 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 수료한 경우 일반과정은 수강료의 80% 정보화기초 혹은 인터넷원격훈련은 수강료 전액, 외국어과정은 수강료의 50%를 지원	

○ 2007년 1월말 현재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자수(4,958명)의 10% 미만(435명) 수강, 카드제 훈련과정 개설 훈련기관수는 41개소에 122개 과정임.

○ 훈련과정 유형별·훈련직종별 과정수
- 참여 훈련 직종은 서비스 분야(50, 41%)>사무관리 분야(38, 31.1%)> 금융보험분야(12, 9.8%)
- 훈련종류는 일반훈련(76, 62.3%)>인터넷 원격훈련(40, 32.8%)> 외국어 훈련(6, 4.9%)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모니터링 평가 결과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발급대상자 인정기준이 불분명함. 이에 사업초반에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월 공포) 제2조의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총 사용기간을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하로 제안하여 문제점 개선
- 훈련기관은 신규과정 개설에 소극적이며, 새로운 제도로 인한 지문인식기 설치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 능력개발제도에 외국어과정은 직무능력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편임. 언어능력은 핵심적인 직업능력의 일부이므로 잠재적 훈련생들의 입장에서 외국어과정의 증설 요구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로 인해 행정부담 증가 등

□ 시사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능력개발지원의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정 및 운영 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한 비용지원 정책으로 비용지원 시스템은 구축한 상태임. 또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 역시 근로자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희망과정의 개설이 미흡한 실정임.

○ 현재 개설된 교육훈련과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직 및 고용 안정 등에 필요한 자격과정, 능력함양 등에 대한 훈련·고

용 정보 제공 등의 체계화가 필요함. 특히 훈련결과의 활용 및 교육훈련 이력 관리가 가능하여 고용정보로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나. 외국의 운영 현황

나-1. 학습이력 관리제도

□ 일본 평생학습 패스포트제[4)]

○ 일본의 평생학습 패스포트는 평생학습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산업계가 본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 전국 규모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평가를 사회가 판단하도록 함.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여짐.

○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활용방안보다 개별지역 생애학습패스포트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 학습결과 인정 및 활용방안을 개발하고 있음.

□ 영국 Progress File(PF)[5)]

○ 영국의 Progress File은 새로운 QAA의 질적체제와 기준체제를 위한 5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며, 4년 동안 영국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 소개됨.

- 각 과정은 고등교육기관 문서마다 제시한 변화 제안에 동의하고 각

4) 박인종(2008). '평생학습계좌제 실행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의 내용을 참조함.
5) John Peters(2000)'Implementing progress file : Skill, PDP, and recording achievement'를 참조함.

기관 간에 의사소통하고 있으므로 각 영역에 걸친 포괄적 컨설팅 중의 하나임.

○ Progress File의 개인발달계획 관점은 개인 학습, 개인 수행(성취), 개인적·교육적 계획과 경력 개발에 반영되는 구조와 지원 과정으로 정의됨.
- 개인발달과정은 고등교육 수준의 학습에 통합되는 구조적인 과정/전체적 관점에서의 학습(학문적·비학문적인 통합)/개인 목적 성취를 위한 자기 반영, 개인 기록 창출 및 계획발달 등을 포함한 과정/학문기관의 직원 및 고용주와 같은 관계자와 개인능력향상에 대한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의도로 설명됨.

○ Progress File이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효율성
- 고등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독려함.
- 평생학습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대한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줌.
- 학습자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자체 평가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함.
- 고용주에게 학습자의 능력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줌.

○ 교사가 필요 시점에서 자유롭게 시험을 치르며 또한 획일적인 평가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진도나 성취수준에 따른 개별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경우에 따라 공식적인 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평소 학생을 관찰, 면담함으로써 시험을 대신하며, 대부분의 평가는 서술형이나 논술형 검사, 실기시험 등 수행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선택형 문항은 거의 사용함.

□ 뉴질랜드[6)]

6) 최상덕(2006). '교육계좌제 시행을 위한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 방안'자료를 참조함.

○ 뉴질랜드는 학점 교환을 위해 보다 유연한 국가자격체계(NQF) 구축과 학습기록부(Record of Learning) 선행학습 인정을 통해 형식 학습뿐만 아니라 비형식·무형식 학습을 인정하고 있음.

- 이 제도를 통한 학습 인증 방식은 평가인증 받은 기관에게 프로그램 모듈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이 모듈을 이수하면, 그 이수결과를 기록으로 축적해가는 방식임.
- 이를 위해 등록한 개인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학점누적에 의한 자격과 학력의 취득이 가능하고, 취업 때 개인의 학습누적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

○ 뉴질랜드의 국가자격체계(NQF)는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취득하여야 할 학점수가 정해져 있음. 따라서 각 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요구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양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뉴질랜드 국가자격체계에서 수준별 요구되는 학점>

수준	자격	취득 학점	비고
10	박사	10단계에서 최소 240학점 이상 이수	
9	석사	8,9단계에서 최소 240학점 이상 이수 (단, 9단계에서 최소 40학점 이상 이수)	10단계 등록 가능
8	학사 후 졸업장과 수료증	7단계에서 최소 120학점 이상, 그리고 8단계에서 최소 7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9,10단계 등록 가능
	명예학사	최소 480학점 이상(연계 과정 또는 복수전공) 8단계에서 120학점 이수	
7	학사	최소 360학점(4-7단계) : 7단계에서 최소 72학점 이상 이수 / 4단계에서 최대 20학점 이수	8,9단계 등록 가능
	대학수준의 졸업장과 수료증	6, 7단계에서 등록 가능. 5-7단계에서 최소 60 학점 이상 이수 / 각 단계별 최대 40학점 이수	복수전공·연계 전공
6 5	졸업장	4단계 이상에 해당되는 학점 중 최소 120학점 이상 이수 / 5단계 이상에서 각 단계별 최대 72 학점 이수	
4,3,2,1	수료증	40학점 이수 : 고등학교 수준의 자격	

*출처: http://www.nzqa.govt.nz

○ 이와 같이 다양하게 구성된 수준체계는 다음의 준거에 의해 구분되어 질 수 있음(Anneke Westrnhuis, 2001).

- 자격취득과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진입하기 위한 요구 조건 또는 자격평가 요건(예; 사전 교육훈련수료기간 또는 현장경력)
- 자격의 취득으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예, 프로그램의 기간 또는 학습 장소 등)
- 학습결과의 관점에서 성취기준/산업현장 직무수행 관점 또는 작업의 특성 관점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성취기준
- 직업상의 위계구조상에서 자격의 위치
- 특정 수준에 해당하는 자격의 질에 대한 공정한 진술

※ '수준'의 의미는 일반적인 능력의 높고 낮음, 교육 훈련 받은 기간의 길고 짧음, 교육 훈련 받은 기관의 사회적 위상 및 종류,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또는 일과 관련된 등급의 높고 낮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방식임.

나-2. 학습비 지원제도

□ 영국[7)]

○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Individual Learning Accounts)는 2000년 9월 1일 제정된 학습기술법(Learning and Skill Act 2000 : LSA)의 제104조부터 109조의 조항에 의해 그 설립근거를 마련함.

○ 시행령이나 규정은 주마다 별도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총소득이 £18,000(약 3,600만원)이하인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연간 £200(약 4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총소득이 £18,000이상인 주민에게는 £100(약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Rutherford, 2008).

7) 박인종(2008). '평생학습계좌제 실행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의 내용을 참조함.

○ 영국 웨일즈주의 경우는 주정부가 개인학습계좌에 매년 £200을 제공하되, 정부에서 인가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NQF(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3단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8)]

○ 평생학습계좌제(LiLAs)는 2007년 상원(S.26)과 하원(H. R.2901)에서 심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평생학습계좌법안(Lifelong Learning Accounts Act of 2007, LLAA)에 의해 운영될 예정임. 운영 주관기관인 성인경험학습위원회(The Council for Adult & Experiential Learning: CAEL)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시카고, 인디애나 북동부, 샌프란시스코의 세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함(Sherman, 2008).

○ 시범운영단계에서의 주된 학습대상자들은 요식업, 공공영역, 보건의료 등의 산업분야에 종사자로서 이들은 본인의 학습계좌에 연간 최대 5,250$까지 학습경비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되, 납입된 학습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500$(LLAA SEC. 25E)까지 해주고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가 학습계좌에 납입하는 금액만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업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최대 지원액은 연간 500$임. 고용주는 이 지원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게 됨.

□ 스웨덴[9)]

○ 미국의 LiLAs처럼 세금감면 방식으로 제도를 구안하였으나 제도 도입에 실패한 경우임.

---

8) 박인종(2008). '평생학습계좌제 실행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의 내용을 참조함.

○ 1999년 12월 스웨덴 산업고용정보통신부(Ministry for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s)가 개인능력개발(Individual Competence Development)의 일환으로 개인학습계좌제위원회(ILAC)에게 ILAs 도입 구안 요청, 세금감면의 자발적 개인학습계좌제로 ILAs를 제안하였음. 2002년 4월 학습계좌제 실시방안의 불완전함, 교육과 세금감면의 차원, 저축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로 능력개발이 필요하나 배제된다는 점, 법 조직 관련 기술적 문제 등으로 최종 제도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함(Lynel, 2003).

□ 독일[10]

○ 독일연방교육연구부는 2008년도에 발표한「평생학습 형성전략을 위한 계속교육혁신위원회의 제안서」중 평생학습체제 구축전략 10가지를 제안하였음. 개인이 자기책임 아래 미래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계속학습을 통한 직업적 역량개발을 기획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장려금(Weiterbidungspamie)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계속교육장려금은 연봉 17,900유로(개인), 3,500 유로(부부)이하인 경우 최대 154 유로를 책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도입한 '교육수표'(Bidungsschecks)제도 같은 것을 통한 중소기업의 계속교육 참여 활성화 방안도 고려 계획임(Bundesministerium fur Bildung und Forschung, 2008).

□ 시사점

○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국내외 유형 구분

9) 10) 박인종(2008). '평생학습계좌제 실행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의 내용을 참조함.

유형	국내 사례	국외 사례	비고
학습이력관리형	- 이천시 평생학습 시민대학 수첩제 - 목포시 학습 기록 수첩제 - 순천시 평생학습포인트제	- 일본 평생학습 패스포드제, 등록생애학습제도, 경력기록부(CR), 경력지원시스템, 비즈니스커리어 제도 - 영국 발달기록부(PF) - 뉴질랜드 학습기록제 (RL) - 미국 군 경험 훈련인증제 (VMET)	
학습비 지원형	- 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근로자 수강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 영국 개인학습계좌제 (ILAs), 성인학습자계좌 (ALA)(잉글랜드) - 미국 개인훈련계좌제 (ITAs), 평생학습계좌제 (LiLAs) - 독일 계속교육장려금 (Weiterbildungspramie) - 교육수표제도 (Bidungsschecks)	* 영국 ILAs는 England 주에서 부정행위 약 1200억원 낭비, 2001. 11.23. 정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Adult Learner Account 도입 운영 중 * 스웨덴은 1999년 도입추진, 2002년 4월 방안 미흡으로 추진 중단
혼합형	- 한국 평생학습계좌제	- 스웨덴 개인학습계좌제 (ILAs)	* 학력인정, 학습비, 학습이력관리, 자격 연계

*출처: 박인종(2008).'평생학습계좌제 실행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재구성.

○ 외국의 경우 학습이력관리제 및 학습비용지원 운영 국가로 대별되며, 이들 정책은 대부분 정부개입 또는 정부주도의 주체로 추진되고 있음. 영국, 뉴질랜드 등과 같이 학습이력관리형 제도 운영 국가에서는 국가자격 체계와 연계 운영하는 사례를 볼 수 있음.

- 학습비지원형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에서는 학습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및 직업역량 개발 등을 촉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비용 확보와 지원상의 문제 등으로 추진상 미진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형식적인 교육기관에서의 성인학습기회 제공 및 활용에서 벗어나

형식적 비형식적 경험학습을 대학, 산업체 등에서 인정하고 활용하도록 인정 및 활용의 범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향후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시에는 평생학습 공급기반을 양적, 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학습비지원과 학습이력관리를 통합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제3절 평생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계 방향

1. 자격제도의 개선 방향

가.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선 방향[11)]

□ 자격의 개념 변화(이동임 외, 2006)

○ 기존의 개념 : 자격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임(자격기본법 제2조).

- 자격이 직업자격에 한정되어있고, 1회적인 검정에 의해 자격부여

※ 일반적으로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능력(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말함.

- 학위, 학력, 이수증, 기초능력인증, 선행학습평가·인정 등 포함

○ 변화 개념 :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평생학습의 강조, 인력의 이동 증가 등에 따라 다음 측면에서 자격의 개념 변화 필요

- 근로자를 포함한 학습자 개인을 전제로 개인의 능력인정에 중점 둠.

---

11) 최상덕 외(2006) '교육계좌제 시행을 위한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방안 연구'와 이동임 외(2006) '지식정보시대의 신자격제도 구상'자료를 참조함.

- 학습(교육훈련)에 염두를 두면서도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학습을 전제로 하고 자격 부여 방식도 다양해야 함.
- 기존의 신호, 선도, 선별기능 외에 노동이동 촉진 기능, 평생학습촉진 기능, 다양한 능력평가기제들의 통합과 연계 기능 등이 추가되어야 함.

□ 자격제도의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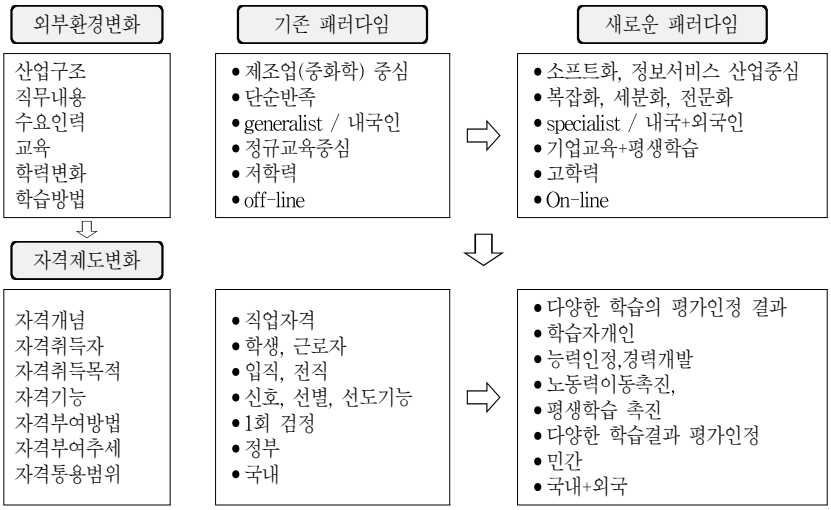
○ 현재 우리 나라의 자격제도는 생애개발의 측면에서 유연성 부족,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성 부족, 평가인증 결과의 통용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반면 평생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자격체제와 개인의 평생경력개발 지원, 일과 학습간 연계, 계속학습 참여에 대한 동기 제고, 중복학습 방지를 목적으로 한 선행학습 결과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체계를 개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실현과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자격체제(NQF)를 통합적으로 구축 설계하고 교육과 훈련, 자격, 노동시장간의 유연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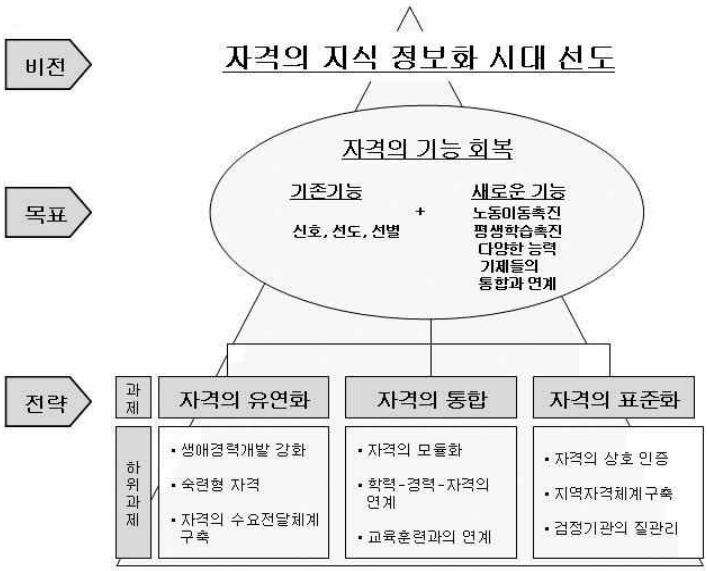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자격기본법의 대폭 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국가자격체계(KQF)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다양한 학습결과를 인정하여 노동시장의 이동, 생애경력개발 등이 가능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함.
- 국가자격체계(KQF) 개발·구축과정에서 선행학습 및 근로경험을 공식적으로 평가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임.

[그림 Ⅳ-1]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자격제도 변화



*출처: 이동임 외(2006). '지식정보화시대의 신자격제도 구상'자료를 참조함.

[그림 Ⅳ-2] 지식정보시대의 자격제도 목표와 전략



*출처: 이동임 외(2006). '지식정보화시대의 신자격제도 구상'자료를 참조함.

나. 국가자격체계의 도입 필요성

□ 국가자격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 개념 : 국내의 각종자격을 현장의 직무수준체계에 근거하여 수준별로 구분하여 자격과 직무수행능력을 알리는 포괄적 체계임. 국가자격체계의 수준에 따라 학력, 직업자격, 교육훈련 결과간의 상호 연계 및 어떤 자격이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체계

- 국가자격체계는 자격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가 다른 형태의 학습결과를 통합적으로 인정하려는 의도임. 습득한 지식의 반복 학습 지양, 학습경로의 다양화 통해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하고자 함(예: 직업자격으로 고등교육기관 진학 가능).
- 직업자격 및 직업훈련내용의 체계화, 현장 지향화를 통해 학력, 직업자격, 직업교육훈련 결과의 상호 호환 조건 조성

□ 국가직무능력표준(KSS : Korean Skill Standards)의 설정

○ 국가 수준에서 국가자격체계를 구축하여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하여야 함.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현장의 일에 바탕을 두어 개발함으로써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공인의 기준으로 활용됨.

□ 국가자격체계(KQF)의 도입 이유

○ 국가자격체계는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훈련에 체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경로의 안내 역할 수행

○ 특히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술과 지식의 빠른 변화로 '평생직장'보다 '평생직업'이 중시되면서 개인의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개발이 필수적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격도 평생학습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노동시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학교교육 이후에 비공식적인 다양한 학습결과와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함.

다. 국가자격체계를 통한 자격과 평생학습계좌제와의 연계 필요성

□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국가자격체계(NQF) 운영 사례 : 호주[12)]

○ 호주자격체계(AQF:Austalian Qualification Framwork)는 직무능력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자격과 학력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평생학습촉진과 경력개발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자격체계임.

○ 호주에서는 자격 취득을 위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습(formal learning)결과 이외에 다양한 장소와 방법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즉 선행학습)도 자격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해 주는 중요한 학습경로로 주목됨.

○ 2004년 6월 호주자격체계자문위원회(AQFAB)는 '선행학습인정을 위한 원칙과 운영지침(National Principles and Operational Guidelines for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RPL))'을 승인하여 호주자격체계에서 선행학습인정의 확대를 도모함.

□ 자격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의 평생학습 촉진 기반 조성

○ 국가자격체계의 활용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결과를 통합적으로 인정하는 틀을 구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축 기반 마련

- 학습 경로 다양화를 통해 무형식·비형식 학습 결과의 평가·인정 기

12) 이동임(2008). '평생학습계좌제 추진방향 및 이해'토론 원고를 참조함.

반 마련

○ 국가자격체계(KQF)에 기반을 두고 학습이력을 관리, 인정할 경우 자발적인 학습과 개인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기반 마련

○ 교육·훈련·자격제도를 연계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질 관리 체제 기반 마련

2. 평생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계 방향

가. 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계를 위한 전제

○ 학습계좌제와 자격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위해서는 자격관련법상에 평생학습에 의한 교육훈련 즉 학습경험과 자격과의 연계를 위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현재 2007년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9조(자격체제의 구축 등) ⑤항에 따르면 국가자격 신설 또는 민간자격 공인시에 자격 체제를 고려하고, 자격체계를 기준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간의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함.

- 그러나 평생학습 경험과 자격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을 비롯한 자격관련법에 자격과 호환이 가능한 교육훈련 범위 표기시 평생학습에 의한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명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학습계좌제에 의한 교육훈련의 수준이 국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학력조건에 상응하도록 평가 제공되어야 함.

※ 현재 국가기술자격의 학력수준은 기술사는 석사 이상, 기사와 기능장은 학사, 산업기사는 전문학사, 기능사는 고졸 정도의 수준임.

○ 학습결과를 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자격의 수준을 어느 학력 수준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국가자격체계를 통해 자격의 수준은 비교할 수 있으나 각 자격의 응시자격, 시험수준, 자격취득자의 활동상황 등을 검토하여야 함.

○ 학습자의 학습내용에 따라 취득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결정될 수 있으나 각 자격 종목별 취득요건에서 학습경험만으로도 무시험 자격 부여가 가능한지, 교육훈련과정의 개설시 어떤 자격과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등 다양한 유형의 자격이 운영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과정의 개발단계에서 자격과의 연계를 검토하여 연계 자격과 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인증이 전제되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에서 요구하는 응시요건에 현장 경력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선행학습과 근로경험의 평가인정체제 및 다양한 검정 방법의 도입이 필요함.
-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대상, 평가절차에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함. 특히 다양한 학습 및 경험 중에 평가인정이 가능한 범위는 국가직무능력 표준과 매칭이 가능한 학습 및 경험 내용으로 선정하여야 함.

나. 평생학습계좌제와 자격의 연계 방식

□ 현행 학점은행제 운영 시 학습자 취득 자격의 학점 인정 방식 확대

○ 향후 평생학습계좌제에서 학점은행제를 포괄하여야 하므로 학점은행제 운영시 학습자가 취득한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과 인정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 도입 검토

- 현재 적용 중인 자격증 취득 학점 인정 제한 기준 중 '현장근무경력만으로 취득 가능한 자격(주택관리사, 직업훈련교사 등)', '자격시험 없이 일정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예, 사서, 위생관리자 등)'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학점으로 인정 추진 검토. 이를 통해 일의 경험과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 자격으로 연계하는 기반 마련 가능함.
- 현재 자격증 취득 학점은 전공 관련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나 어학, 정보소양능력 외에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함양 관련 자격까지 인정 범위 확대 필요

□ 학습계좌제의 학점 이수결과를 근거로 자격으로 인정

○ 학습계좌제를 통해 학위취득과 동시에 자격 취득이 가능한 교육과정 개설을 확대하고 이수 안내하거나 일정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의 학점을 다양한 인증기관에서 취득한 경우 계좌제에 기록된 이수 결과를 근거로 자격 취득을 인정하는 방식

예) 가정학과, 사회복지과의 건강가정사, 보육과의 보육교사(2급),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사(2급) 등

자격	자격요건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12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
보육교사2급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그 학점 중 해당 교과목(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인정받은 자
사회복지사2급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및 동일전공 관련** 14과목 을 이수한 자

□ 계좌에 기록된 근로경험 및 관련 선행학습 이력을 자격 취득으로 연계

○ 학습계좌에 기록된 일의 경험과 경력, 관련학습 이력들이 일정 자격 취득에서 요구하는 선행 요건이 될 경우 자격취득으로 연계

-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이 지닌 다양한 일과 학습경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 구체적인 인정 방법은 2008년 교과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선행학습 및 근로경험의 평가인정 방안” 연구 수행 결과('08.11. 종료) 활용

□ 국가직무능력표준(KSS)개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결과를 관련분야 자격 취득으로 연계

○ 2009년부터 각 부처별로 중점 추진될 계획인 KSS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을 평가 인정된 기관에서 이수했을 때 그 결과를 계좌제에 기록 관리하고 종합 평가하여 해당 자격 발급과 연계 관리

- 예) 뉴질랜드는 계좌제 기록 이력 중 자격취득에 필요한 유닛을 모두 이수한 경우 관련분야의 자격 발급

다. 자격과의 연계에 따른 기대 효과

○ 국가직무능력표준(KSS)에 기반을 두고 평가·인정된 과정의 학습결과에 대해 투명성과 형평성 획득 가능

○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형식적, 비형식적 선행학습경험을 포함하여 인정시 국가자격체계에 근거한 수준을 명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경로 설정 및 학습촉진에 의한 ‘개방성’ 추구

○ 국가자격체계와 연계시 학습계좌이력은 개개인의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 경로 설계 등에 직업능력 역량을 제시하는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

○ 궁극적으로 평생학습결과의 누적 관리 체계와 국가자격체계와의 연계로 교육훈련-자격-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능력사회 구현 및 학습결과의 통합적 관리에 의한 '효율성' 추구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 -』. 2008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7). 시・도교육청 학점은행 상담자료실 담당자연수자료.

권두승(2008). 『평생학습계좌제 실행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제도』. 2008년도 한국평생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평생교육학회.

김만희(2008). 『평생학습계좌제 이해와 실제』. 평생학습계좌제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전국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자료. 평생교육진흥원.

나영선 외(2006). 『평생직업능력개발 시스템 혁신 방안』. 대통령 자문 사람입국일자리 위원회.

나영선・김상호・김철희(2007).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범운영 평가 및 개선방안』. 노동부.

노동부(2008a). 노동분야 국정과제 세부실천계획.

_____(2008b).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성공 그리고 나눔』. 제17대대통력직인수위원회 백서 1.

박난서(2007).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비교분석 및 통합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종(2008). 『평생학습계좌제 실행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2008년도 한국평생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평생교육학회.

박천수(2006). 『고용보험능력개발사업의 유용성과 부과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백은순(2008). 『평생학습계좌제 실행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제도』. 2008년도 한국평생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평생교육학회.

___(2008). 『평생학습계좌제 추진방향 및 이해에 대한 토론 1』. 평생학습계좌제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전국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자료. 평

생교육진흥원.
박태준(2005). 『평생학습의 참여실태와 수요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유미 외(2006). 『직업중심대학 구축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송춘환(1998). 『학점은행제 운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주엽・박진희・김혜원・김주섭・박성재(2005).『한국노동시장에서 지역성』, 사회통합과 지역경쟁력을 위한 지역 고용・능력개발 전략에 관한 국제회의, 한국노동연구원・경제협력개발기구.
이남철(2003). 『개인학습계좌제를 통한 평생학습지원방안연구-미국,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동임(2008). 『평생학습계좌제 추진방향 및 이해에 대한 토론 2』. 평생학습계좌제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전국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자료. 평생교육진흥원.
이동임 외(2006). 『지식정보시대의 신자격제도 구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정표(2000). 『평생학습 평가인정제도 구축 방향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제6권 제2호. pp.109-128.
장창원 외(2006). 『인적자원개발과 경제성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지선 외(2003). 『단기 성인학습과정 도입에 따른 전문대학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지선 외(2002). 『생애에 걸친 직업교육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기관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2008). "MB 정부의 직업교육 발전과제". 한국직업교육학회.
채창균 외(2006).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신입사원 교육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외(2005).『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와대브리핑(2005). 『평생학습참여 실태분석 보고』.
최상덕 외(2006). 『교육계좌제 시행을 위한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운실(2008). 『평생학습계좌제 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자료. 2008년도 한국평생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평생교육학회.

최지희 외(2007). 『재직근로자의 노동시장에서 학교로의 이행 촉진을 위한 기업-고등교육기관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각종조사자료". 각년도.

한국교육개발원(2004). 『한국의 평생교육 수준 진단』.

_____(2007). 평생학습결과표준화시범운영 결과보고서.

한국평생교육학회(2008). 『학습계좌제와 평생교육의 방향』. 2008년도 한국평생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한숭희(2000). "인적자원 개발·관리를 위한 평생학습 체제 종합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자료". 인적자원 개발·관리를 위한 평생학습 체제 종합 발전 방안 탐색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Bitt, W. S.(1983). "University and College Extension marry LEIy, Handbook of Adult Education in United State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IMD. "IMD World Competitive Yearbook". 각년도.

John Peters(2000). "Implementing progress file : skill, PDP, and recording achievement". University College Worcester Learning and Teaching Center.

OECD(2002). "The Financing of Lifelong Learning,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___(2004a).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___(2004b). "Lifelong Learning, Policy Brie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___(2005). Promoting Adult Learning.

___(2007).「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저자 약력

· 장명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정태화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정지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이병욱
  - 충남대학교 교수

새 정부의 평생직업교육부문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

· 발행연월일	2008년 6월 29일 인쇄 2008년 6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김 형 만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인 쇄 처	크리홍보(주) (02)737-5378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8436-976-4 9337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가 4,000원>